

#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의 지도밑에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조선로동당 조선인민군위원회 연합회의 확대회의가 진행되었다

온 나라가 조선로동당 제7차 대회를 승리자의 대축전으로 맞이하기 위하여 대비약, 대혁신을 일으키고있는 역사적인 시기에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조선로동당 조선인민군위원회 연합회의 확대회의가 2월 2일과 3일 평양에서 진행되었다.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께서 연합회의 확대회의를 지도하시였다.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께서 회의에 앞서 제일 훌륭한 우리 인민의 리익을 옹호하고 일심단결을 강화하기 위하여 우리 당력사에서 처음으로 당중앙위원회와 인민군당위원회 연합회의 확대회의를 소집한데 대하여 언급하시고 개회를 선언하시였다.

회의에서는 보고와 토론들이 있었다.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께서 연합회의 확대회의에서 역사적인 결론을 하시였다.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께서 이번 회의가 조선로동당 제7차대회를 맞으며 당 정치사업과 당활동에서 새로운 전환을 일으키는데서 중요한 계기로 된다고 하시였다.

우리 당은 인민대중제일주의를 높이 들고 인민의 꿈과 리상을 실현하기 위해 투쟁하는 당, 주체혁명의 최후승리를 앞당겨나가는 강위력한 향도적력량이라고 하시면서 장장 수십성상 인민의 운명을 지키고 인민의 행복을 위하여 투쟁하여왔으며 사소한 오류나 우여곡절도 없이 승리만을 이룩하여온데 대하여 언급하시였다.

이번 회의가 당의 유일적령도밑에 전당이 하나와 같이 움직이고 당중앙의 두



리에 하나의 사상의지로 굳게 뭉쳐 당을 조직사상적으로 더욱 강화하는데서 중요한 의의를 가진다고 강조하시였다.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께서 온 사회를 김일성-김정일주의로 일색화하기 위한 사업을 더욱 심화시키며 당의 유일적령도체계를 철저히 세우는데서 나서는 과업과 방도들을 제시하시였다.

당의 유일적령도체계를 세운다는 것은 사회의 모든 성원들을 참다운 김일성-김정일주의자로 튼튼히 준비시키며 당건설과 당활동에서 나서는 모든 문제를 오직 당의 령도밑에 풀어나간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하시였다.

혁명과 건설에서 사상과 령도의 유일성을 철저히 보장하는것은 혁명발전에서 나서는 기본원칙이며 모든 승리의 확고한 담보이라는데 대하여 언급하시였다.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께서 전당과 온 사회를 김일성-김정일주의로 일색화하는데서 당의 유일적령도체계와 당의 유일적령도체계를 세우는것은 현시기 중차대한 문제로 나선다고 강조하시였다.

세기를 이어온 반미전면대결전을 총결산하고 주체혁명위업의 최후승리를 앞당기기 위해서도 온 사회를 김일성-김정일주의로 일색화하여야 한다고 하시였다.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께서 온 사회를 하나의 사상으로 일색화하기 위한 투쟁을 힘있게 벌릴데 대하여 지적하시였다.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께서 전당에 당의 유일적령도체계를 세우기 위한 사업을 실속있게 벌려야 한다고 말씀하시였다.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께서 전당, 전군이 우리의 일심단결을 파괴하고 쪼먹는 세도와 관료주의를 철저히 없애기 위한 투쟁을 강도높게 벌려야 한다고 강조하시였다.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께서 우리 당이 밝힌 자강력제일주의를 높이 들고 나아갈데 대하여 지적하시였다.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께서 우리 당과 혁명발전에서 분수령으로 되는 당 제7차대회까지는 얼마 남지 않았다고 하시면서 모두가 용기백배, 기세충천하여 뜻깊은 올해의 총진군에서 불굴의 정신력을 총폭발시켜 영예로운 승리자가 될데 대하여 열렬히 호소하시였다.

투쟁으로 시작되고 투쟁으로 전진하는 우리 혁명의 앞길에 시련과 난관이 겹쌓일수록 우리의 혁명신념은 더욱 굳건해질것이며 우리의 앞길을 가로막을자는 이 세상에 없다고 말씀하시였다.

위대한 김일성-김정일주의기치를 높이 들고 당의 두리에 단결하고 또 단결하여 주체혁명의 최후승리를 향하여 헌신분투해나갈데 대하여 언급하시였다.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께서 조선로동당 제7차대회를 맞으며 우리 인민에게 안겨줄 승리의 월계관을 마련하기 위하여 모두가 총돌격, 총매진해나아가자고 열렬히 호소하시였다.

전체 참가자들은 조선로동당을 위대한 김일성, 김정일대원수님의 당으로 빛내여나가는데서 강령적지침으로 되는 불멸의 대강을 받아안은 크나큰 격정에 넘쳐 우렁찬 《만세!》의 환호를 터쳐올리였다.

본사기자

#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의 조국통일방안을 국제사회가 열렬히 지지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께서 역사적인 신년사에서 밝혀주신 가장 공명정대하고 현실적인 조국통일방안은 국제사회의 폭풍같은 반향을 불러일으키고 있다.

신년사가 발표된 후 따쭈끼 스핀공산당 중앙위원회, 베닌 《김정일장군 만세》 친목회와 주체사상연구 베닌전국위원회, 스웨리에조선친선협회, 오스트리아 조선의 평화적통일을 위한 로조원들의 련대성위원회, 아시아아프리카인민단결기구를 비롯한 수많은 정당, 단체와 국제 및 지역기자들이 성명들을 통하여 신년사에 제시된 조국통일방안을 적극 지지찬동하였다.

로씨야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과의 련대성그룹은 다음과 같이 성명하였다.

김정은원수님께서 2016년 신년사에서 북과 남, 해외의 전체 조선민족은 내외반통일세력의 도전과 방해책동을 물리치고 우리 민족끼리의 기치

밑에 조선땅우에 존엄높고 부강번영하는 통일강국을 기어일떠세우고야말것이라고 강조하시였다.

남조선당국이 《흡수통일》야망을 드러내놓았지만 우리는 이를 단호히 배격한다.

《흡수통일》야망은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을 너무나도 모르고 날뛰는 어리석은 망상이다.

김정은원수님의 령도밑에 조선인민은 내외반통일세력의 도전을 짓부시고 자주통일의 새시대를 열어나갈것이다.

기네조선친선협회는 성명에서 다음과 같이 지적하였다. 우리는 남조선당국이 조선민족내부문제를 외부에 들고다니며 《공조》를 구걸하는 수치스러운 행위를 그만둘것을 강

력히 요구한다.

우리는 미국과 남조선당국이 위험천만한 침략전쟁업무를 비롯한 조선반도의 긴장을 격화시키는 군사적도발을 중지할것을 요구하며 남조선당국이 부질없는 체제대결을 추구할것이 아니라 조선민족의 총의가 집대성되어있고 실천을 통해 그 정당성이 확증된 조국통일3대원칙과 6.15공동선언, 10.4선언을 존중하고 성실히 이행해 나가려는 의지를 보여줄것을 주장한다.

역사적인 신년사에 대한 국제적반향이 날로 더욱 높아가는가운데 로씨야, 이란, 로마니아, 벨가리아, 메히꼬, 브라질, 가나를 비롯한 여러 나라의 각계 인사들도 담화를 발표하여 절세위인의 조국통일

방안에 전적인 공감을 표시하였다.

범아프리카운동 우간다전국집행위원회 위원장 다니엘 루가라마는 격동된 심정을 이렇게 피력하였다.

김정은동지께서는 《내외반통일세력의 도전을 짓부시고 자주통일의 새시대를 열어나가자!》라는 구호를 제시하시고 위세의 간섭을 배격하며 북남관계와 조국통일문제를 민족의 지향과 요구에 맞게 자주적으로 풀어나갈데 대하여 지적하시였다.

그이께서는 진실로 민족의 화해와 단합, 평화와 통일을 바라는 사람이라면 누구와도 마주앉아 민족문제, 통일문제를 허심탄회하게 논의할것이라고 확신에 넘쳐 말씀하시

였다. 민족자주정신이 맥박치는 조선인민의 최고령도자 김정은동지의 역사적인 신년사를 전적으로 지지한다.

영국혁명적공산당(맑스-레닌주의) 총비서 마이클 찬트는 경애하는 김정은동지의 신년사는 조선의 자주적평화통일의 앞길을 밝힌 강령적선언이라고 하면서 다음과 같이 강조하였다.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 신년사에서 밝히신 조선통일방안들은 매우 정당하다.

신년사를 통하여 조선의 통일문제가 조선민족에게 있어서 얼마나 절박한 과제이며 조선반도의 평화를 수호하는 문제와 직결되어있다는것을 잘 알 수 있다.

본사기자

# 강국의 위용을 펼쳐주신 불멸의 그 업적

위대한 김정일장군님에 대한 그리움이 더욱 강렬해지는 2월이다.

올해벽두에 높이 올린 수소탄의 장쾌한 퇴성으로 민족의 존엄과 위용을 만방에 떨친 남다른 긍지속에 맞이하는 2월이어서 그이에 대한 경모심은 더 절절하다.

나라의 군력강화에 온넛을 다 바치시여 최강의 핵강국 건설의 토대를 쌓으신 위대한 장군님입니다.

돌이켜보면 지난 1990년대 중엽 공화국에 가로놓인 시련과 난관은 참으로 컸다. 천만 뜻밖의 민족대국상과 외세의 악랄한 반공화국압살책동, 런 이어 들이닥친 자연재해로 나라의 운명은 생사존망의 위기에 놓여있었다. 그때 세계의 이목은 조선으로 쏠리었고 제국주의자들은 조선의 《사회주의붕괴》는 시간문제라고 떠벌이면서 공화국에 대한 제재와 군사적압살의 도수를 높이였다.

위대한 장군님께서 제국주의자들의 노예가 되느냐 아니면 자주적근위병이 되느냐 하는 력사의 갈림길에서 결연히 선군의 기치를 더 높이 드시고 선군장정의 길을 걸으시였다.

주체84(1995)년 새해의 첫 아침 다박술초소에로의 군부대시찰에 이어 런이어 이어진 그이의 선군천만리길, 그 길에는 전사들을 찾아가는 나의 길은 그 어떤 풍랑도 막지 못할것이라고 하시며 길길이 솟구치는 파도를 맞받아 자그마한 패속정에 몸을 실으시였던 초도의 배길도 있었고 이 길만은 가실수 없다고 막아서는 전사들에게 정 이러면 나는 포차로라도 끌고 올라가겠다고 하시며 오르셨던 오성산의 가

파롭고 미끄러운 칼벼랑길도 있었다. 위험천만한 전선길을 이어가시는 그이께 인민들이 더는 그런 길을 걷지 마시라고 만류할 때마다 내가 가시칠조망을 친 전연에까지 간다고 인민들이 가슴아파하지만 전사들이 있는 곳이라면 그보다 더험하고 위험한 곳에도 가보아야 한다고 하시며 순간의 휴식과 지체함도 없이 전선에서 또다시 전선으로 떠나시던 장군님이시였다.

고난을 웃음으로 이기시는 무비의 담력과 배짱을 지니신 백두산장군이 아니고서는 결코 넘으실수 없는 사선의 천만고비들이었으며 험난한 전선길이었다. 그 나날 위대한 장군님께서 원수들이 칼을 빼들면 우리는 장검을 휘두르고 원수들이 총을 내대면 우리는 대포를 내뿜것이라고 하시며 백두산총대를 억척같이 버려주시였다.

그 누가 내마음 몰라준대도 회망안고 이 길을 가고가리라는 드림없는 신념, 적대세력의 가증되는 핵위협소동에 대처하여 자위의 핵억제력으로 민족의 안녕을 수호해야 한다는 숭고한 사명감으로 가슴을 불태



끊임없는 현지지도의 길에 계신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장군님

우시였기에 누구도 생각할수 없었던, 아무나 용단을 내릴수 없었던 두 차레의 지하핵시험의 성공으로 민족의 천만년미래를 담보해주시고 적들의 침략책동에 섬멸적타격을 안기신 위대한 장군님이시다. 진정 백두령장의 천리혜안의 예지와 지략, 무비의 담력과 배짱이 있어 공화국은 그 어

떤 원썬도 감히 덤벼들지 못하는 당당한 핵보유국, 인공지구위성 제작 및 발사국의 지위에 올라설수 있었다. 언젠가 아버지수령님께서 고난을 극복하고 강적과 싸워 이기는 백두산정신은 장군님의 사상정신적지주라는데 대하여 이야기하시면서 김정일동지는 고난을 웃

아파학원 극동연구소 소장인 《조선은 지금 세계유일초대국으로 자처하는 미국에 당당하게 맞서고있는데 이것은 김정일령도자의 강인성과 무비의 담력을 그대로 보여주고있다.》고 했다. 외국 의 한 신문은 장군님께서 서거하신 후 《김정일장군이 어떻게 되어 세계의 존경을 받는

음으로 이기는 백두의 령장이 다, 장군의 위엄은 고난극복과정 에 돋보이게 된다, 고난을 이기는 장군이라야 진짜 장군이다, 김정일동지는 고난이 클수록 높은 사명감을 백배로 가다듬고 강적과 싸워이길 멸적의 보검을 더욱 높이 추켜 들고 나아간다고 하시였다.

화를 복으로, 역경을 순경으로 전환시켜나가신 위대한 장군님의 현명한 선군령도는 일찌기 그 어느 나라 력사에서도 찾아볼수 없는 전무후무한 것으로서 강권과 전횡이 살판치는 오늘의 세계에서 민족의 자주권과 존엄을 지키고 민족만대의 행복을 가져오게 하는 가장 정확하고 옹바른 길이 무엇인가를 현실로 증명하였다.

하기에 로씨야에 로씨야의 강대국으로 세계가 우러러 보게 만든 경애하는 원수님의 강인담대한 담력과 배짱, 단호한 결단에서 또 한분의 불세출의 선군령장을 모신 민족의 크나큰 긍지와 자부심을 가슴뽀뽀이 절감하고있으며 강성번영할 민족의 래일을 굳게 확신하고있다.

온 겨레는 첫 수소탄의 장쾌한 폭음으로 주체의 핵강국을 세계가 우러러 보게 만든 경애하는 원수님의 강인담대한 담력과 배짱, 단호한 결단에서 또 한분의 불세출의 선군령장을 모신 민족의 크나큰 긍지와 자부심을 가슴뽀뽀이 절감하고있으며 강성번영할 민족의 래일을 굳게 확신하고있다.

본사기자 주일봉

민족자주위업실현을 군사적으로 담보하는 인민군대는 곧 조선의 힘이다. 유격전과 정규전에서 강대한 침략세력들을 타승하였고 장기간의 총포성없는 반체대결전에서도 런 전련승하는 조선인민군이 있어 공화국은 불패의 강국으로 존엄높다.

장군이 있어 강국이 있다는 진리를 산 현실로 쓴 인민군대의 자랑스러운 행로에는 건군의 4월 25일과 함께 2월 8일이 새겨져있다. 이날은 인민군대가 자기 로정에서 새로운 리정표를 새긴 력사적인 날이다.

《...하늘을 찢는 신호탄발사의 총성이 울리면서 인민군대의 열병식대진군은 개시되었다. 대군악대의 행진곡에 발맞춘 대오마다 천지를 삼킬듯 한 기세다... 한 대오, 한대오 김일성위원장앞을 지나는 광영에 몸도 떨린다. 오 -우러러 보이는 곳에 김일성위원장!

김일성위원장은 손을 높이 쳐들어 이에 화답한다...》 1948년 당시 거행된 조선인민군 열병식을 취급한 한 신문의 보도내용이다. 바로 그날 인민군대는 전신인 조선인민혁명군으로부터 현대적인 정규무력으로 새롭게 발전한 모습을 장엄한 열병식으로 보여주었다.

나라가 외세의 식민지기반에서 해방되어 불과 두해 남짓한 기간에 정규화된 인민무력이 창설된것은 세상을 놀래운 극적인 사변이었다.

정규군건설경험도 없고 현대 과학기술을 아는 인재도 부족하였으며 일제에 의하여 모조리 파괴된 락후한 경제와 텅 빈 금고밖에 없던 것처럼 어려운 조건과 환경에서 군중, 병중, 전문병의 정규화적면모를 다 갖추고 자체의 병기들로 무장한 정규무력이 탄생한 것이었다.

군사를 제일국사로 내세우시고 국가건설에 앞서 군대건설에 온갖 로고와 심혈을 기울이신 위대한 김일성주석의 천리혜안의 선견지명과 현명한 령도에 의하여 마련된 빛나는 결실이었다.

해방후 정규화된 군대, 자체의 민족군대를 건설하는것은 나라를 완전한 자주독립국가로 건설하는데서 나서는 초미의 과제였다. 강한 자위적무장력이 없이는 외세의 침략으로부터 나라를 지킬수 없고 민족은 망국노의 처지를 면할수 없다는것은 력사의 진리이고 일제에게 나라가 짓밟히었던 민족의 과거사가 가르쳐주는 피의 교훈이었다.

더우기 해방후 남조선을 비법적으로 강탈하고 전조선반도를 타고났을 야망밑에 북침전쟁준비를 로골화하는 미국에 의하여 조성된 엄중한 정세는 하루빨리 현대적정규무력건설을 요구하였다. 그런데 일부에서는 나라가 통일되기 전에 군대는 시기상조라는것, 외국 의 원조가 없이는 정규군창설

이 불가능하다는 등으로 회의적이었고 미온적이였다.

총대중시의 선군으로 민족자주위업을 개척하시고 조국해방의 력사적위업을 실현하신 아버지수령님께서 정규무력창설을 새 조선건설과 민족의 전도와 직결된 사활적인 중대사로 여기시고 정규군건설을 목적지향성있게 다그치시였다. 1945년 11월 평양학원이 창립되었고 1946년 4월 중앙보안간부학교가 창설되었다. 1948년 1월에는 수상보안간부학교, 1947년 8월 비행대가 조직되었다. 군사정치지휘관들을 양성하는 일로부터 각 군중, 병중,

전문병부대들을 창설하는 문제, 군사청호와 군복제정 그리고 자체의 병기공업발전에도 깊은 관심을 기울이시며 로고와 심혈을 바치신 아버지수령님의 비범한 예지와 정력적인 령도에 의하여 마침내 인민군대는 정규적무력의 첫걸음을 떼게 되었다.

정규군의 탄생은 지난날 자기 힘을 지킬 힘이 약하여 외세에게 짓밟히었던 피눈물나는 민족사에 종지부를 찍고 강대한 자주민족으로 떠오르는 앞날을 예고한 장엄한 선언이었다.

조국의 하늘, 땅, 바다를 자기 힘으로 지킬 힘과 경험을 쌓은 인민군대는 새 조국건설을 총대로 굳건히 담보하였으며 조국의 운명을 판가리하는 조국해방전쟁에서 미국을 피수로 한 제국주의련합무력을

타승하고 세계전쟁사에 류례없는 전승신화를 창조하여 현대적정규무력건설과 강화발전 에 불멸의 업적을 쌓으신 아버지수령님의 령도의 비범성을 온 세상에 파시하였다.

아버지수령님의 령도밑에 정규군의 첫 자욱을 떼고 위대한 김정일장군님을 모시여 최강의 정예무력으로 장성강화되어 전면전쟁만이 아니라 《푸에블로》호사건과 《EC-121》대형간첩비행기사건, 판문점사건을 비롯한 적대세력과의 총포성없는 대결전에서도 런전련승한 인민군대의 강군의 력사와 전통은 바로 2월 8일과 하나로 잇닿아있다.

국가방위, 인민보위의 성스러운 행로에서 언제나 승리의 한길만을 걸어온 인민군대는 오늘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의 락월한 령도 밑에 그 어떤 침략세력의 도전도 단애에 제압하는 무적강군의 위용을 더 높이 떨치고있다.

소형화, 정밀화된 핵무기들에 이어 그보다 수백배 더 위력한 수소탄을 개발하고 지구상 그 어디에 있는 침략의 본거지도 타격할수 있는 각종 핵운반수단들도 갖춘 최강의 군대가 있어 나라와 민족의 안전은 굳건히 담보되고 경제강국건설과 문명국건설, 인민생활향상에서 전례없는 새로운 비약이 일어나고있다.

대를 이어 위대한 천출명장들을 모시여 강군의 력사, 강국의 존엄과 더불어 2월 8일은 길이 빛나고있다.

본사기자 리 설

## 통일의 길에서

### 언제나 통일을 생각하시며

주체74(1985)년 9월 22일 일군들과 자리를 같이하신 위대한 김정일장군님께서 조국통일은 우리의 가장 성스러운 사명이며 우리에게 맡겨진 중요한 임무라고 하시면서 이렇게 교시하시였다.

《우리 세대에 조국을 통일하려면 모든 일군들이 언제나 조국통일에 대하여 생각하며 일해야 합니다. 새벽에 일어나 창문을 열 때에도 조국통일을 생각하

고 밤에 불을 끄고 잠자리에 누울 때에도 조국통일을 생각하여 야하며 꿈을 꾸어도 조국통일에 대한 꿈을 꾸어야 합니다. 우리의 모든 생각은 조국통일과 잇닿아있어야 하고 우리의 모든 사업은 조국통일로 지향시켜 진행하여야 합니다.》

이렇듯 장군님께서 언제나 어디에 가시여셔도, 아침에도 새벽에도 언제나 조국통일에 대해 생각하시였다.

### 바다 같은 도량

주체90(2001)년 1월 3일 일군들과 자리를 같이하신 위대한 장군님께서 지난해에 력사적인 평양상봉이 이루어지고 6.15공동선언이 발표된것은 조국통일을 위한 투쟁에서 획기적인 사변으로 된다고 하시면서 뜻깊은 교시를 하시였다.

조국통일을 실현하는데서 중요한것은 민족적단합을 이룩하는것이다. 남조선연론사 대표단을 만났을 때에도 이야기하였지만 6.15북남공동선언을 지지하는 사람이라면 과거를 묻지 말고 다 손을 잡아야 한다. 과거를 따지기 시작하면 민족적단합을 이룩할수 없다. 수령님께서 지난

날 《반공》을 하던 사람들도 조국통일의 길에 나서겠다고 하면 대담하게 포섭하시였다. 우리는 조국통일을 위하여 나서는 사람들은 다 포섭하여 민족적단합을 이룩하여야 한다.

정녕 맑은 강, 흐린 강 할것 없이 다 받아안은 바다와도 같이 한없이 넓으신 도량이였다. 밝아온 새해에도 민족대단합으로 자주통일의 새로운 장을 열어놓으실 철석의 의지를 천명하시는 장군님의 모습은 우러르는 일군들의 눈앞으로 그이의 손길따라 다가오는 통일의 려명이 찬란히 비껴호르고있다.

본사기자

# 위대한 인민의 모습

## 《김일성장군님을 찾아갑니다》

지난 조국해방전쟁의 전략적인 일시적 후퇴시키는 청소한 공화국에 있어서 매우 준엄한 시련의 시기였다. 조선전쟁을 도발한 미국이 비법적인 유엔 결의를 조작하고 대규모의 침략무력을 조선전선에 증파하여 인천상륙작전을 기도함으로써 인민군대는 최후승리를 위해 전략적으로 북으로 후퇴해들어오지 않으면 안되던 것이다. 미국은 조선전쟁이 이미 결판이 난듯이 기고만장하여 대규모의 병력과 장비를 북으로 끌어들여 들어밀었다.

바로 그러한 때인 주제 39(1950)년 10월 중순 어느날 밤 전쟁의 중하를 한몸에 걸머지신 위대한 김일성장군께서 타신 승용차가 청천강나루터를 건너 어느 한 고개에 이르렀을 때였다. 인민군대의 새로운 총반공격을 위한 작전을 구상하시며 깊은 사색에 잠겨 차창밖을 내다보시던 수령님께서는 어둠속에서 몇대의 달구지가 인민군행군대오의 뒤를 따라가는것을 보시고 차를 세우시었다.

위대한 수령님께서 맨 앞에서 달구지를 끌고가는 로인님으로 다가서시어 어디서 오는 달구지들인가 물으시었다. 로인은 강원도 법동에서 오는 달구지들이라고 대답하였다.

위대한 수령님께서 로인의 대답을 들으시고

물시 놀라시며 그 먼곳에서 여기까지 오느라고 수고 많았겠다고 하시며 그에게 담배를 권하시었다. 그러시고는 로인에게 손수 성냥불까지 그어주시며 물으시었다.

《그래 로인님은 이 깊은 밤에 어디로 갑니까?》

로인은 북쪽으로 간다고, 지금이야 북쪽으로밖에 갈데가 있는가고 말하였다.

위대한 수령님께서 로인의 말을 몇번 되뇌이시더니 북쪽에 가면 친척이라도 있는가고 다시 물으시었다.

로인은 친척이 없기도 하거니와 이 전쟁판에 친척은 찾아 무엇하겠는가 하고 하면서 군대동무들과 같이 김일성장군님을 찾아가는 길이라고 하였다.

순간 위대한 수령님께서 가슴이 찢어질듯이 잠시 말씀을 못하시다가 이 관리통에 김일성장군은 왜 찾아가는가고 물으시었다. 로인은 못마땅한듯 노여움섞인 목소리로 대답하였다.

《왜 찾아가다니요?! 김일성장군님을 찾아가야 살길이 열리고 우리가 전쟁에서 이기지 않겠소.》

로인의 말은 조용하였으나 위대한 수령님만을 굳게 믿고 따르는 드물지 않는 신념이 맥박치고 있었다.

위대한 수령님께서 한동안 묵묵히 계시다가

지금 미국놈들이 계속 밀려오고있는데 로인님생각에는 우리 편이 전쟁에서 이길것 같은가고 물으시었다.

로인은 《이거지요. 이기고 말구요. 김일성장군님께서 계시는데 무슨 걱정이 있겠소! 이거지요! 일찌기 동에 번쩍, 서에 번쩍 하면서 그 악독한 왜놈장자들을 꺾어 없애버려야 할것이 바로 우리 장군님이 아니시오. 장군님께서 이번에도 그 못된 미국놈들을 모조리 쳐 없앨것입니다. 이제 두고보시오. 놈들이 혼쭐이 나서 달아나는걸...》라고 말씀드리었다.

위대한 수령님께서 《그래 지금은 미국놈들이 밀려오고있지 않습니까?》라고 말씀하시자 로인은 《밀려온다구요? 죽으러 오지요!》하고 격한 어조로 장담하였다.

위대한 수령님께서 그 대답이 너무도 신통하여 로인님은 어쩌면 그렇게도 우리와 똑같이 생각하고 있는가고 하시며 호탕하게 웃으시었다.

위대한 수령님께서 《웁습니다. 지금 미국놈들은 밀려오는게 아니구 죽으러옵니다.》

...

전쟁에서 이길 날은 멀지 않았습디다. 그때면 로인님은 고향에 돌아가 또다시 마음껏 농사를 짓게 될것입니다. 강계까지 가려면 힘들것

입니다. 미국놈들의 비행기에 주의하십시오. 그럼 편안히 가십시오.》라고 뜨겁게 말씀하시었다.

장군님을 찾아가야 살길이 열리고 전쟁에서 이긴다.

이제는 당시 범동의 한 농민 혼자만의 생각과 신념이 아니었다. 나라가 해방된지 5년, 공화국이 창건된지 불과 2년밖에 안되지만 어버이수령님의 품속에서 자주적인민들의 참다운 삶을 꽃피운 공화국의 인민들과 군인들 누구나의 가슴에 이런 신념이 짙게 차있었다.

위대한 수령님께서 로인과 나누신 이야기를 되새기시며 그가 사라진 경길을 점도록 바라보시더니 수원들에게 말씀하시었다.

《보시오. 우리 인민은 다 이렇소. 얼마나 좋은 농민이요. ...저런 인민을 가지고있기때문에 우리는 전쟁에서 반드시 승리하오.》

후날 위대한 수령님께서 는 그 농민을 못 잊어하시며 일시적인 전략적 후퇴의 그 어려운 시기에도 자기의 수령과 당을 굳게 믿고 따르는 이러한 인민이 있는 한 적들의 그 어떤 발악적인 공세도 능히 격파하고 놈들을 파멸로 몰아넣을수 있다는 확신을 더욱 굳히시었다는 데 대하여 감회깊이 회고하시었다.

본사기자 박봉혁

가장 좋은것, 가장 훌륭한것을 볼 때면 문득 떠올리게 되고 그 좋고 훌륭한것을 다 안겨주고 다 누리게 하고싶은 생각이 갈마드는 대상, 이는 자신이 제일로 사랑하는 사람이다.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의 마음속 가장 첫자리에 자리잡고있는 인민이 바로 그러한 대상의 실체이다.

그이께서는 세상에서 가장 훌륭하고 멋진것을 보시면 먼저 인민을 떠올리시고 그 모든것을 인민들에게 돌려주고싶으시어 지금 이 시각도 쉬임없는 현지지도의 길을 이어가고계신다.

2015년을 눈부신 사변과 기적으로 수놓으시며 인민들에게 신비하고 황홀한 거리와 공장들, 과학기술전당을 비롯한 창조물들을 안겨주시고도 원수님께서 만족을 모르시었다.

올해신년사에서 우리당은 인민생활문제를 천만가지국사 가운데서 제일국사로 내세우고있다고 하신 그이께서는 정초부터 금급체육인종합식료공장과 김정숙평양방직공장을 비롯하여 인민생활향상을 위한 공장들을 련이어 현지지도하시었다.

인민생활에서 획기적인 전환을 일으켜 인민들이 최상의 문명을 최고의 수준에서 누리도록 해주려는것이 경애하는 원수님의 숭고한 뜻인것이다.

인민생활에서 전환을 안아오자면 과학기술을 앞세워야 한다는것을 통찰하시고 과학기술전당 준

공식장을 찾아 새해의 첫 눈길우에 첫 자옥을 새기신 원수님이시었다.

불수룩 멋진 과학기술전당을 만족하게 바라보시며 새해의 첫문을 과학이 열었다고 말씀하시때에도 그의 마음속에 굽이친것은 다름아닌 인민에 대한 열화와 같은 사랑이었다.

그이께서는 세상에서 가장 훌륭하고 멋진것을 보시면 먼저 인민을 떠올리시고 그 모든것을 인민들에게 돌려주고싶으시어 지금 이 시각도 쉬임없는 현지지도의 길을 이어가고계신다.

2015년을 눈부신 사변과 기적으로 수놓으시며 인민들에게 신비하고 황홀한 거리와 공장들, 과학기술전당을 비롯한 창조물들을 안겨주시고도 원수님께서 만족을 모르시었다.

올해신년사에서 우리당은 인민생활문제를 천만가지국사 가운데서 제일국사로 내세우고있다고 하신 그이께서는 정초부터 금급체육인종합식료공장과 김정숙평양방직공장을 비롯하여 인민생활향상을 위한 공장들을 련이어 현지지도하시었다.

인민생활에서 획기적인 전환을 일으켜 인민들이 최상의 문명을 최고의 수준에서 누리도록 해주려는것이 경애하는 원수님의 숭고한 뜻인것이다.

인민생활에서 전환을 안아오자면 과학기술을 앞세워야 한다는것을 통찰하시고 과학기술전당 준

을 보다 질적으로 내놓기 위한 명제품, 명상품 생산의 동음이 높이 울리고있다.

원산구두공장에서 생산되는 《매봉산》 상표의 구두를 보아도 다른 나라의 신발보다 결코 짝지 않으며 《금겹》을 비롯한 식료생산기지들에서 쏟아져나오는 각종 당과류나 음료들도 명제품들이다.

여러가지 기능성화장품들이 개발되어 녀성들이 《봄향기》 화장품을 저저마다 갖고있으며 그 어느 상점의 매대를 보아도 자체로 만든 상품들이 짝차있다.

바다에는 인민들의 식탁에 바다항기가 그득히 차넘치게 할 《이채어경》이 희한하게 펼쳐지고 전국도처에 남새온실, 버섯생산기지들이 일떠서 생산이 활성화되어 인민들에게 기쁨을 더해주고 있다.

인민들을 남부럽지 않게 내세우시려는 경애하는 원수님의 의도와 구상은 날에 날마다 현실로 펼쳐져 인민들이 그 덕을 보고있다.

지금 세계는 조선에서 인민생활과 경제가 비상히 발전하고있다고 하면서 이것은 전적으로 김정은령도자의 훌륭한 령도의 결실이라고 찬탄을 금치 못하고있다.

천만가지국사중에 제일국사로 내세워진 인민생활향상의 화살표를 따라 공화국은 인민의 제일천국, 제일력원으로 더 아름답게 변모되고있다.

본사기자 리경월



브라질신문 《빠뜨리아 라떠나》 1월 20일부가 《조선을 방문하면서 본것》이라는 제목으로 미국기자의 우리 나라 방문기를 게재하였다.

신문은 조선로동당창건 70돐경축 평양시군중시위와 평양시전경사진과 함께 《미국기자가 조선을 방문하고 서방언론이 퍼뜨리는 의곡된 사실들을 수정, 서방을 놀래울 신화들과 진실, 사건들을 밝히다.》라는 해설글을 달았다. 방문기는 조선인민의 미

### 브라질신문 미국기자의 우리 나라 방문기를 게재

국인들에 대한 감정, 단정 한 옷차림, 다종다양하고 자유로운 개성 등에서 느낀 소감을 퍼력하고 다음과 같이 강조하였다.

확실히 서방과 미국은 조선에 대하여 잘 모르고 있다.

조선이 직면하고있는 문제들에 대하여 특히 대국들의 위협속에 존재하고 있다는 사실에 대하여 단

한번도 언급된적이 없다. 조선이 미국땅을 타고 앉으려고 매해 미국의 해안가에서 전쟁연습을 한다고 가상해보자.

그러면 미국은 이러한 상황에 대처하여 핵무기를 개발할 생각을 하지 않겠는가?

조선사람들은 전쟁을 추구하지 않는다. 그들은 리비아의 운명

을 지켜보면서 선군정치와 핵역제력이 있기에 나라의 자주권을 굳건히 수호한다고 확신하고있다.

명백히 말하여 조선은 먼저 핵무기를 사용할 의사가 없다.

서방이 조선과의 관계를 개선할것을 진심으로 권고한다.

현실적으로 조선을 다녀온 사람들은 자기들이 생각했던것과 조선에서의 체험이 완전히 다른데 대하여 놀라와하고있다. 본사기자



금급체육인종합식료공장

강력한 국가건설의 진로를 밝힌 경제와 핵무력건설병진로선은 날이 갈수록 그 정당성과 생활력을 힘있게 과시하고있다.

오늘 수소탄까지 보유한 공화국의 최강의 핵역제력은 나라의 자주권과 존엄수호를 위한 확고한 담보로 되며 튼튼한 자립경제토대와 발전된 과학기술은 경제건설과 인민생활향상에서 전례없는 비약을 가져오고있다.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께서 경제를 발전시키고 인민생활을 높이기 위한 투쟁은 강력한 군사력, 핵무력에 의하여 담보되어야 성과적으로 진행될 수 있다고 하시었다.

공화국의 병진로선은 자체의 힘으로 핵역제력을 증추로 하는 나라의 군력을 비상히 강화하여 반제반미대결전에서 최후승리를 이룩할수 있게 하는 가장 정당한 로선이다.

공화국의 인민은 적대세력의 핵전쟁위협으로부터 자기의 자주권과 생존권을 지키고 평화와 무궁번영을 이룩할수 있는 유일무이한 길은 핵

무력에 의거한 강력한 군사적 힘을 가지는 길이라는것을 피고 교훈과 력사의 진리로 절감하였다.

한세기전까지만도 자기를 지킬 힘이 없어 사대와 망국을 속명처럼 감수하여야 하였고 령강들의 각축전속에 무참히 짓밟히었던 우리 민족이었다.

세상을 둘러보아도 지구상에서 첫 원자탄이 출현한이래 많은

전쟁이 발발하였지만 핵보유국들사이에는 단 한번도 전쟁이 없었고 리해관계의 모순에 의한 대립은 늘 있었어도 군사적 충돌은 없었다. 반면에 대국들에 기대를 걸고 자기 힘을 키우지 않고 외세의 압력과 회유에 굴복하여 이미 있던 전쟁의 제력마저 포기한 그 대가가 얼마나 비참한것인가를 발칸반도와 중동나라 인민들의 비극적 운명이 잘 보여주고있다.

지난 조국해방전쟁시기 조선반도에서 핵무기를 사용할 흥계를 꾸민 미국의 핵위협과 공

같은 오늘까지 반세기이상을 헤아리는 장구한 기간 지속되고있으며 날이 갈수록 더욱 가중되고있다.

핵으로 위협하며 달려드는 침략세력의 강권과 전횡에 맞서 핵무력을 질량적으로 강화하여 민족의 존엄과 자주권, 조선반도의 공고한 평화와 지역의 안정을 지키는 가장 정당한 국가전략이 바로 공화국

의 병진로선이다. 병진로선에 의해 민족의 천만년미래를 굳건히 담보하는 수소탄의 장쾌한 폭음이 울리고 오랜 세월 겨레가 품어온 부국강병의 념원도 더욱 빛나게 실현되게 되었다. 핵력강중심의 세계정치구도에 파렬구가 뚫리고 반공화국적대세력이 핵무기를 휘두르며 실처대던 때는 영원히 지나갔다. 공화국의 정의의 핵역제력은 미국의 핵전쟁위협을 막고 민족의 안전과 강토의 평화를 수호하는 민족공동의 재부, 통일번영의

파를 낼수 있게 하는 현실적인 로선이라고 하시었다. 반공화국적대세력과 그 추종세력은 공화국의 병진로선에 대하여 경제발전과 인민생활향상에 부정적영향을 미칠것이라고 시비중상하고있다. 그러나 현실은 병진의 길에 경제강국건설의 지름길이 있다는것을 웅변해주고있다. 최첨단과학기술의 정수를 이루는 핵무기와 인공지구위성 제작 및 발사기술의 끊임없는 발전은 나라의 전반적과학기술을 세계적수준에 올려세우고있다. 병진로선

이 제시된후 공화국은 확고한 군사적담보밑에 경제건설에 더 많은 인적, 물질적재력을 기울여 경제성장과 인민복지향상에 박차를 가하고있다. 지난 한해에만도 수많은 기념비적건축물들을 세웠고 새 세기 산업혁명 열풍속에 금속, 철도운수, 경공업, 농업 등 여러 분야에서 생산적양양이 일어나고 교육, 체육을 비롯한 문화분야에서

반합선로케트를 비롯한 다종의 신행무장장비들을 개발하고 수소탄까지 보유한 오늘의 비약적인 현실은 병진로선의 정당성을 힘있게 확증하고있다. 이에 대하여 해외동포들은 공화국의 수소탄은 민족의 미래를 담보한다. 경제부흥본격화의 신호탄이라고 기쁨을 금치 못해하고있다. 또한 《조선은 핵시험을 통해 잃는것보다 얻는것이 더 많다. 조선은 재래식무기에 대한 투자를 대폭 줄여 더 많은 자원을 경제발전에서 돌릴것이다.》, 《북조선은 핵보유국이다. 이 한마디에 담긴 무한한 의미는 마술과도 같이 북조선에 무한한 번영과 행복을 가져다줄것이다.》라는것이 공정한 세계여론의 시각이고 찬탄이다.

국가방위력을 백방으로 강화하고 경제강국건설, 인민생활향상에서 결정적전환을 가져오는 병진로선은 반제반미대결전에서의 최후승리와 민족번영을 담보하는 가장 현명하고 정당한 애국애족의 국가건설전략이다.

창조와 건설의 모든 분야에서 병진로선을 구현하여 최대의 속도로 최고의 문명을 창조하고있는것이 공화국의 현실이다. 자력의 힘으로 만든 비행기가 하늘에 날고 땅속에는 우리가 만든 지하전동차가 달리며 자강의 힘으로 초정밀화된

본사기자 리경월

본사기자 박봉혁

본사기자 리경월

# 생활의 향기

## 미래과학자거리의 류경장미원을 찾아서

평범한 교육자, 과학자들을 위한 행복의 보금자리로 일떠선 미래과학자거리에 류경장미원이 봉사를 시작하여 이곳을 찾는 사람들을 기쁘게 해주고있다.

얼마전 우리는 한겨울에도 질은 장미꽃향기를 풍기는 류경장미원을 찾았다. 장미꽃장식들과 어울려 현대적미가 짙게 풍기는 류경장미원에 들어서니 마치도 장미꽃바다가 펼쳐진 화초원에 들어선것만 같았다.

류경장미원의 1층에는 건식 및 습식한증관이 달린 일반목욕실과 한증방, 장미수목욕실, 리발실 등이 있었다.

일반목욕실은 한번에 많은 사람들을 수용할수 있을뿐 아니라 손님들의 편의를 최대한 보장해줄수 있게 꾸려져있었고 한증방과 나란히 하고있는 청량음료실에서는 손님들에게 장미꽃차와 장미요그르트를 비롯한 맛 좋고 영양가 높은 청량음료들을 봉사해주고있었다.

마시는 사람들로 하여금 기분이 좋게 하고 상쾌한 감을 주는 장미꽃차는 세계적으로 매우 인기가 높아 첫번째로 꼽는 꽃차의 한 종류라고 한다. 장미꽃차는 그윽한 향기와 온화한 맛으로 하여 피로를 푸는데서 특효를 가진다고 한다.

류경장미원에서 더욱 눈



길을 끄는것은 장미수목욕이다. 분홍빛 장미꽃잎들이 등등 떠다니는 맑은 장미수에 몸을 잠그고 목욕을 하는 쾌감이야말로 무엇보다도 비길수 없다고 사람들마다 이야기한다.

오래전부터 인류는 절반정도 된 장미꽃을 랭각응축시킨 장미수는 로리의 향료로, 장미수를 재차 증류하여 얻은 장미유는 화장품과 의약품, 식료품향료 등으로 많이 써왔다.

장미수는 피부보호 및 영양상태개선과 평형보장작용이 뛰어나 장미수로 목욕을 하면 피부에 많은 영양분이 공급되어 수분과 탄성이 유지되고 피로가 빨리 해소되어 몸이 거뜨해질뿐 아니라

비노기계통질병치료 등 건강장수에 매우 효과적이라고 한다. 그래서인지 국내인민들은 물론 외국인들과 해외 동포들도 장미수목욕을 하러 이곳을 찾고있었다.

류경장미원의 2층에는 경쾌한 음악에 맞추어 여러가지 건강체조를 할수 있는 건강체조운동실과 탁구장, 벽정구실, 미안실, 안마실, 미용실 등 각종 운동실들과 편의시설들이 있었다. 피부를 매끈하고 탄성있게 해주고 보습효과가 뛰어난 장미수와 장미기름을 리용한 미안봉사는 녀성들속에서 인기가 높다고 한다.

약용화초들이 무성한 온실화된 대중식사실, 로데식사실 등이 있는 만장층 역시 자리의 별미를 맛볼수 있는 독특한 곳이었다. 이곳에서 손님들은 약용화초들의 그윽한 향기와 조롱안의 새들의 지저귐소리가 조화를 이루는

속에서 향긋한 장미향료를 넣은 로리들을 맛보며 즐거운 시간을 보내고있었다.

김책공업종합대학 교원 리철수는 《장미수목욕은 옛날에는 왕족들이나 해운것으로 되어왔고 오늘날에도 자본주의 사회에서 돈많은 사람들이나 할수 있는것으로 되고있다. 하지만 우리 나라에서는 나와 같은 교육자, 과학자들이 국가의 혜택으로 최상의 문명을 마음껏 누리고있다.》고 말하였다.

미래과학자거리에 넘쳐나는 장미꽃향기, 그것은 인민을 위해서라면 하늘의 별도 따오시는 원수님의 인민사랑의 향기, 사회주의만복의 향기라 해야 할것이다.

새로 일떠서는 미래과학자거리에 장미수목욕을 하는 봉사기지를 꾸리도록 해주시고 여러차례에 걸쳐형성안도 보아주시면서 세심하게 이끌어주신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의 숭고한 인민사랑이 있어 류경장미원과 같은 인민의 봉사기지가 이땅에 일떠설수 있었다.

함박눈이 펄펄 내리는 추운 겨울날에도 장미꽃향기를 질게 풍기며 류경장미원은 어서 오라 사람들을 부르고있다.

본사기자 고영숙

개선역흥으로 새 지하전동차가 가지고 리용할수 있다.》고 말하며 들어서는 순간 사람들의 입에서는 었다.

가벼운 탄성이 터져나왔다. 저마다 멋쟁이 미남자처럼 생긴 새 지하전동차를 바라보며 감탄을 금치 못했다. 결불안이라고 외형에 못지않은 지하전동차의 내부는 또 그대로 멋이 있었다.

서서히 닫기는 출입문의 윗쪽에서 출발을 알리는 신호와 함께 손님들을 태운 지하전동차는 다음 정거장을 향해 미끄러져 갔다.

객차안에 줄지어 늘어선 손잡이들은 한번 잡으면 놓고싶지 않게 살뜰한 정을 불리일었다. 해당 역들의 특징까지 사진과 함께 방불히 보여주는 정보안내판에서는 날자와 시간, 주행상태와 온습도까지 실시간으로 알려주고 또 그옆에 있는 액정화면으로는 여러가지 상식들을 포함한 동화상자료들이 쉽게 접근된다.

설날에 이 지하전동차를 타보았다는 한 녀성은 그때에는 아동영화를 참 재미있게 보며 갔다고 즐겁게 이야기하기도 했다.

렬차안에는 임의의 요구대로 접을수 있는 의자들과 장애인들을 위한 자리, 아기어머니들을 위해 색다른 포복석운 자리와 안내판들도 있었다. 《이 지하전동차는 렬차의 출발과 정차시에 가속과 제동이 원활하여 렬객들이 보다 안정감을

### 웃음실고, 행복실고 달린다

모든 면에서 사람들에게 최대한의 편의를 도모해주는 지하전동차였다.

렬차의 내부형태와 조화를 이루는 손잡이가 류달리 눈에 어려와 어쩌면 이렇게 높이나 크기가 적당하게 만들었는가고 묻자 안내원은 손잡이도 조선사람의 체질에 맞게 만들어야 한다고 하신 경애하는 원수님의 말씀을 받들고 김종래전기기관차련합기업소의 기술자, 로동자들이 직접 손으로 잡아도 보고 그 아래에 서보기도 하면서 만든것이라고 이야기해주었다.

이 렬차를 운전하는 오영철기판사는 다른 전동차들에 비해 보임면이 넓어 운전이 유리할뿐 아니라 안전적인 면과 모든 조작이 손쉽고 다루기 편리해 정말 좋다고 하였다.

지하전동차에 오른 렬객들은 그들대로 《지하전동차가 멀어져 갈 때까지 그냥 바라보게 된다.》, 《참으로 멋있고 편리하다.》고 말하였다.

평양시 만경대구역 칠골동에서 사는 김은옥은 《우리가 만든 새형의 지하전동차를 보니 강성국가의 래일이 멀지 않았다는 생각이 저절로 든다. 김종래전기기관차련합기업소의 로동계급처럼 자강력을 발휘하여 힘차게 내달린다면 못해낼것이 없을것이다.》고 말하였다.

본사기자 류현철



# 민족의 유구한 역사를 전하며

지난해 12월 조선중앙력사박물관에서 《백두산절세위인들의 손길 아래 조선중앙력사박물관이 걸어진 70년》이라는 주제의 사진전시회가 진행되었다. 기자는 이곳 박물관의 어해룡관장을 만나 70여

년의 오랜 역사를 가지고 있는 조선중앙력사박물관에 대해 이야기를 나누었다.

## 민족의 역사를 중히 여기시어

기자: 나라가 해방된 해에 조선중앙력사박물관이 건립되었는데 여기에 어떤 사연이 깃들어있는지 알고싶다.

어해룡: 조선중앙력사박물관의 원래의 명칭은 평양박물관으로서 해방후 위대한 수령님의 직접적인 발기와 은정속에 건립되었다.

위대한 수령님께서 해방후 새 조국건설의 것처럼 바쁘신 속에서도 수많은 력사유물들과 자료들을 발굴수집하여 진렬전시해놓는것은 인민들에게 우리 민족의 유구한 력사를 생동하게 보여주시는 중요한 의의를 가진다고 하시면서 주체34(1945)년 12월 1일에 평양박물관을 건립하도록 해주시었다.

그후 여러 지방도시들에 력사박물관들이 서게되면서 평양박물관이 국립중앙력사박물관으로 승격되게 되어 1947년 8월

11일에 개관식을 성대히 진행하였다.

위대한 수령님께서 준엄한 전화의 불길속에서도 나라의 귀중한 문화재들을 안전한 곳에 보관하도록 조치를 취해주시었다. 하여 전쟁시기 서 울과 개성지구에서 조선

## 주체성, 민족성의 원칙에서

기자: 조선중앙력사박물관에서는 어떤 원칙에서 유물자료들을 전시하고있는가.

어해룡: 현재 조선중앙력사박물관에는 선조들이 남긴 많은 국보급유물들과 우리 민족의 발생으로 부터 근대에 이르는 력사자료들이 소장되어있다. 유물자료들은 모두 19개의 호실에 나누어 전시되어있다.

조선중앙력사박물관은 왕들의 생활이나 희귀한 보물들을 진렬하는 방법으로 구성된것이 아니라

봉건왕조실록과 영인본, 순금옥새, 금잔과 잔대를 비롯한 많은 유물들이 구출되게 되었다.

그후 위대한 수령님께서서와 위대한 장군님께서서 우리 인민의 투쟁과 창조력사에 대하여 사람들에게 알리려는 대중교양 장소인 조선중앙력사박물관을 나라길시작점이 자리잡은 김일성광장에 꾸리도록 하시었다. 하여 우리 박물관은 1977년 7월

오늘의 이 자리에 훌륭히 일떠서게 되었다.

## 주체성, 민족성의 원칙에서

인민들의 창조물들과 애국적인물들의 유물, 력사에 기록된 이야기들을 안고있는 대상들을 시기별로, 년대별로 전시하였다.

지난 시기 우리 박물관에서는 유물들을 전시함에 있어서 유물의 가치나 세공술을 위주로 진렬한적이 있었다. 그러나 위대한 수령님의 가르침을 받들고 유물전시를 인민들이 창조한 문화재부들을 위주로 전시하는 인민사편찬체제로 개편함으로써 진렬에서 민

족성과 주체성, 과학성을 철저히 보장할수 있게 되었다.

위대한 수령님께서서 일찌기 민족문화유산보호관리사업을 력사주의적 원칙에서 원상 그대로 할데 대하여 밝혀주신데 따라 지방마다 이릅난 유적들을 중심으로 력사박물관들이 꾸려졌는데 대표적으로 개성민속력사박물관, 묘향산력사박물관 등을 들수 있다.

기자: 지금까지 조선중앙력사박물관에서 수많은 전시회들을 진행한것으로 알고있는데...

어해룡: 그렇다. 우리 박물관은 해방후 첫 전시회로서 《라진초도유물전시회》를 진행하였다. 전 쟁이 끝난 후인 1955년 5월



1일에는 《우리 나라 고서화전시회》가 진행되었다. 1957년에는 한해동안에 《안악고분벽화전람회》, 《고건축단청무늬전람회》 등 7차례의 전시회가 진행되었다.

이밖에도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력사유물전시회》(1980년), 총련결성 30돐을 맞으며 일본

에서 열린 《고구려문화전》을 비롯하여 내외의 깊은 관심과 기대속에 여러차례 유적유물전시회들을 진행하였다. 2003년에 남조선에서 고구려의 강대성을 보여주는 《고구려문화전》이 진행될 때 우리 박물관에서 고구려 시기의 유물 30점을 전시한적도 있다.

## 박물관에 대한 소감들

지난 시기 조선중앙력사박물관을 돌아본 외국인들과 해외동포들의 소감에 대해 듣고싶다는 기자의 말에 어해룡관장은 백번 듣는것보다 한번 보는것이 낫다고 하면서 외국인들의 반응을 적은 책장을 보여주었다. 거기에 적

혀있는 소감 몇가지를 적어본다. 《지금까지 나는 세계 4대문명에 대해서는 알고있었으나 평양일대가 문명의 발원지로 된다는것을 처음 알았다. 평양일대에서 인류화석들도 나오고 유적들도 많이 나왔으니 정말 인류의 발상지라고 말할수 있다. 오늘 조선중앙력사박물관을 참관하고 많은것을 보고 배웠다.》

월레 브레덴헨드리크(뉴질랜드)

《조선중앙력사박물관에 전시된 금관경을 해외 동포조국에 보내온것이라는데 조선민족은 애국심이 높고 민족성이 강하다. 조선사람들은 아마

도 세계의 그 어느 나라에 가있든 자기 조국을 사랑하는 애국심이 남달리 강할것 같다. 조선민족이 이런 훌륭한 기질을 가지고있는것이 부럽다. 하나의 민족이라는 공통된 리념이 있는 한 북과 남은 반드시 통일을 이룩할것이다.》

마이클 슈먼(영국)

《조선중앙력사박물관에 고구려시기 유물들이 잘 보존되어있다. 남쪽에서는 고구려유물들을 볼수 없는데 이번 기회에 보게 되어 기쁘다. 민족유산이야말로 우리 민족이 하나임을 뚜렷이 보여주는 지표들중의 하나이다. 하루빨리 통일이 되어 우리 남쪽사람들도 조선중앙력사박물관에 와서 민족의 유구한 력사와 찬란한 문화를 배울수 있게 되었으면 좋겠다.》

남조선의 거래하니인권은 동본부대표단 단장

어해룡관장은 앞으로 더 많은 유물들을 전시하고 관리운영사업을 더욱 개선하여 우리 겨레가 조선민족제일주의정신을 깊이 간직하고 통일이국로 향해가는 결의를 피력하였다.

본사기자 강류성

나라가 분열된 때로부터 공화국은 조국통일운동을 거족적으로 벌리며 평화적통일을 촉진하기 위하여 전민족적범위의 상설기구들을 내오기 위한 활동을 힘있게 벌여왔다.

공화국은 1940년대 후반기 전조선적통일전선형성의 절박한 요구를 반영하여 북과 남의 모든 애국적민주주의정당, 사회단체들을 총집결하는 단일한 통일전선조직체로서 조국통일민주주의전선(조국전선)을 결성하였다.

당시 나라의 절반땅을 타고 앉은 미국은 조선에 대한 침략정책을 계속 실시하며 남조선장기주둔을 《합법화》하기 위하여 유엔 제3차총회에서 새로운 《유엔조선위원회》를 조작해내려고 획책하였다.

조성된 엄중한 정치정세는 미국의 침략책동과 내정간섭을 반대하고 미군을 조국강토에서 몰아내기 위한 투쟁을 보다 적극적으로 벌일것을 요구하고있었다.

그러자면 북과 남의 모든 애국력량을 총집결하여야 하였으며 전민족이 하나로 굳게 단결

**민족의 단합과 통일을 위한 성의있는 노력 (16)**

**온 겨레를 조국통일의 기치 아래 묶어 세우기 위하여**

하여야 하였다.

조국통일의 구성이신 위대한 김일성주석께서는 주체38(1949)년 5월 16일 북조선민주주의민족통일전선 중앙위원회 제37차회의에서 하신 력사적연설과 6월 11일 북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제6차회의에서 하신 보고에서 조국을 사랑하고 통일을 념원하는 애국적인민들, 특히 남북조선의 진보적인 정당, 사회단체들을 하나의 민주주의적력량으로 총집결하기 위하여 조국통일민주주의전선을 결성할데 대한 방침을 제시하시였다.

조국통일의 기치밑에 전민족적반미구국통일전선을 형성하고 북과 남의 진보적인 정당, 사회단체들을 총집결하여 통일전선운동을 전개할데 대한 방침은 우리 민족자체의 힘으로

통일위업을 실현하려는 주체적인 방침이였다.

또한 북과 남에 이미 조직된 민주주의민족통일전선체에 토대하여 평화통일을 바라는 모든 세력들을 폭넓게 인입함으로써 북남조선의 모든 애국적력량을 튼튼히 묶어세우며 반미구국투쟁을 전민족적범위로 확대하기 위한 진공작이며 적극적인 조치였다.

공화국은 조국통일민주주의전선결성준비사업을 본격적으로 추진하였다.

1949년 5월 25일 평양에서는 북남조선 51개 정당, 사회단체 대표 68명이 모여 조국통일민주주의전선결성준비위원회 제1차회의를 가지고 조국통일민주주의전선결성준비위원회를 구성하고 그 사업내용을 토의하였으며 여기에 망라되려는

애국적정당, 사회단체들이 임의의 시각에 준비위원회에 대표를 파견할수 있다는것을 결정하였다.

6월 7일에 열린 제2차회의에서는 조국통일민주주의전선결성대회를 6월 25일에 평양에서 열것을 결정하고 그것을 북남조선 정당, 사회단체들에 통고하였다.

마침내 주체38(1949)년 6월 25일부터 28일까지 평양에서는 위대한 수령님을 모시고 조국통일민주주의전선결성대회가 소집되였다.

남조선민전에 들어가있지 않던 24개의 남조선의 정당, 사회단체들까지 포함하여 북남조선의 71개 정당, 사회단체 대표 704명이 참가한 가운데 진행된 대회에서는 조국통일민주주의전선

(조국전선)이 정식으로 결성되었으며 중앙위원회가 구성되였다.

조국전선은 북남조선의 민주주의민족통일전선을 하나로 통합하고 거기에 조국통일을 위한 투쟁에 새로 나선 남조선의 중간 및 우익정당, 사회단체들까지 망라한 전국적인 민족통일전선조직으로 되었으며 그 결성은 북남조선의 모든 애국적민주력량을 튼튼히 묶어세우고 그들을 조국통일을 위한 투쟁에로 조직동원함에 있어서 사변적의의를 가지였다.

뿐만아니라 공화국은 1960년대에 조국평화통일위원회를 결성하여 조국의 평화적통일을 실현하기 위한 새로운 강력한 추동력을 마련하였다.

이 시기는 조국통일과 민족

번영을 위한 북남련방제방안의 제시로 평화통일기운이 그 어느때보다 앙양되고 북남협상과 교류를 요구하는 온 겨레의 목소리가 더욱 높아가고있던 때였다.

공화국은 위대한 수령님의 발기와 령도밑에 1961년 5월 13일 평양에서 공화국 각 정당, 사회단체 대표들과 각계 인사 800여명이 한자리에 모여 조국의 자주적평화통일을 더욱 촉진하기 위한 상설기구인 조국평화통일위원회결성대회를 가지였다.

조국평화통일위원회의 결성은 북남협상과 교류를 촉진시키며 조국의 평화적통일을 실현하는데 커다란 기여를 하였다.

참으로 전민족적범위에서 통일을 촉진하기 위한 상설기구들을 결성한 공화국의 성의있는 노력이 있었기에 조국통일운동은 전민족적인 운동으로 더욱 강화발전될수 있었으며 우리 민족의 통일위업수행에서는 새로운 전환이 일어나게 되였다.

본사기자 김혜성

**살과 투쟁의 지침을 안겨주는 포서**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장군님께서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참된 애국은 조국통일을 위한 투쟁 속에 있다.》

위대한 장군님의 이 명언은 북과 남, 해외의 온 겨레에게 참된 애국의 길을 밝혀주고 그들을 조국통일을 위한 투쟁에 적극 떨쳐나서도록 힘차게 고무하는 삶과 투쟁의 지침이다.

외세에 의한 국토의 분렬로 하여 오늘까지도 우리 민족은 일찌기 있어보지 못한 민족적불행과 고통을 당하고있으며 민족의 통일적발전을 이룩하지 못하고있다.

분렬의 비극을 안고있는 우리 민족에게 있어서 참된 애국은 민족대단결의 기치밑에 조국통일을 위하여 헌신하는데 있다.

나라의 통일을 실현하기 위한 겨레의 애국투쟁은 시련을 동반하는 고난 투쟁이다. 우리 민족을 영원히들로 갈라놓으려는 외세의 민족분렬책동과 남조선당국의 반통일적인 사대매국책동에 의해 조국통일위업실현의 앞길에는 의연히 난관과 장애가 가로놓여있다.

진정으로 나라와 민족의 운명에 대하여 생각하고 통일을 바라는 사람이라면 그가 누구이든 사상과 리념, 계층의 차이를 뛰어넘어 조국통일을 위한 애국투쟁에 몸을 내대야 한다.

나라와 민족의 운명속에 민족성원 각자의 삶과 운명이 있고 나라와 민족의 부강번영속에 매 개인의 행복과 미래가 있다는것은 곡절많은 우리 민족사가 보여주는 진리이다.

민족의 어버이이시며 조국통일의 구성이신 위대한 김일성주석과 김정일장군님께서 민족분렬의 고통을 누구보다 가슴아파하시며 우리 겨레에게 통일된 조국을 안겨주기 위해 한평생 온갖 로고와 심혈을 다 바치시여 나라의 자주적통일과 평화번영을 위한 튼튼한 토대를 마련해 주시였다.

위대한 수령님들의 필생의 념원이요 유훈인 조국통일을 반드시 이룩하시려는것은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의 확고부동한 신념이고 의지이다. 조국과 민족에 대한 열렬한 사랑과 한없이 넓은 도량을 지니신 경애하는 원수님께서 조국통일위업실현을 위한 방향과 방도도 환히 밝혀주시며 끊임없는 로고를 바쳐가고계신다.

북과 남, 해외의 온 겨레는 백두의 천출명장이신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의 현명한 령도따라 내외반통일세력의 도전을 짓부시고 자주통일의 새시대를 열어나가기 위한 성스러운 애국투쟁에 한사람같이 떨쳐나서야 할것이다.

리 어 금

**정의와 평화를 수호하는 보검**

진리에 맞아 옳고 바른것이 정의라면 그것을 침해하는것은 부정의이다.

정의를 추구하는 인간의 본성적요구로부터 모 든것을 공정하게 대하고 처리하는 평화로운 국제 질서를 수립하는것은 인류의 공통된 요구로 되고있다.

하건만 오늘의 세계에서는 힘이 곧 《정의》로 되고 힘이 약하면 얻어맞고도 하소연할데가 없는 약육강식의 법칙만이 작용하고있다. 이것은 미국이 강요하고 있는 불공정한 세계질서이다.

미국은 핵무기와 딸라를 휘두르면서 저들의 침략적요구와 미국 식기준에 따라 다른 나라들을 평가하고 그에 불응하거나 눈에 거슬리는 나라들에 대해서는 무력침공, 내정간섭 등 별의별 책동을 다하

고있다. 미국의 횡포한 위협에 굴복하고 끈질긴 회유기만에 넘어간 이라크와 리비아에서는 결국 국권과 인권이 만신창이 되었으며 온 강토가 류혈참구의 란무장으로 화하 고 피난민행렬이 지금도 끊길줄 모르고있다.

력사와 현실이 보여주듯이 정의와 평화는 결코 청원이나 라협적인 회담에서 지켜지고 이루어지는것이 아니다.

이러한 진리를 그 누구보다 먼저 체득하고 뼈속깊이 새긴 공화국은 오직 총대만이 나라의 자주권과 민족의 존엄, 지역의 평화와 안정을 수호할수 있다는것을 확신하고 독창적인 선군정치로 나라의 군력을 백방으로 강화해왔다.

허리띠를 조이며 자위적국방공업의 토대를 축성한 공화국이 인공지구 위성제작 및 발사국이

되고 전략잠수함 탄도탄과 수소탄까지 보유하여 핵보유국의 전렬에 당당히 올라선 오늘 미국은 조선반도에서 전쟁을 일으킬 꿈도 꾸지 못하게 되었다.

오늘 세계 각국에서 높이 울려나오는 《선군정치야말로 조선반도의 평화를 수호하고 민족의 번영을 담보하는 최강의 무기, 진정한 평화수호의 보검이다.》라는 목소리는 경애하는 원수님의 선군령도이래 자위적국방력을 강화하고 진정한 평화를 수호해나가는 공화국에 대한 전적인 지지와 동경이다.

2012년의 첫 자욱을 근위 서울류경수제105땅구사단에 새기시고 수많은 인민군부대들과 초소들을 찾으시며 위대한 수령님들의 선군위업을 끝까지 이어가실 신념과 의지를 굳히신 경애하는 원수님이시다.

날로 가증되는 미국의 핵위협과 고립압살책동을 짓부시고 공화국을 영원히 이 세상 그 누구도 건드릴수 없는 백두산대국으로 빛내이시기 위하여 그이께서는 제견설과 핵무력건설병진의 길에 걸단코 나서시였다.

원수들이 칼을 빼들면 장검을 내대고 총을 내들면 대포를 내대고 핵에는 핵, 침략전쟁에는 정의의 성전으로 대답하는 것이 천출명장의 탁월한 령도를 받는 공화국의 지이고 배짱이다.

미국의 무모한 핵광증을 움짱 못하게 다스리고 길들이시는 그이의 신념, 의지로 버려진 공화국의 자위적핵억제력이야말로 공화국과 민족의 안녕, 조선반도와 지역의 평화와 안정을 지켜주는 위력한 정의의 보검이다.

본사기자 김철진

인류력사에 있는 1만 4500여차의 크고작은 전쟁들은 무기의 발전을 동반했다.

원시적인 창과 칼의 집전이 수천년세월 흘렀다면 근대적인 총포전쟁은 불과 수백년안팎이다. 지구상에 핵무기가 출현한지는 불과 70여년세월이다.

막대한 파괴력과 살상력을 가진 핵무기의 발명과 발전력사는 인류에게 어떤 진리와 교훈을 주는가.

그에 대한 대답을 공화국과 미국의 상반되는 핵보유를 통해 보기로 한다. 인류의 문명은 과학의 발전과 떼어놓고 생각할수 없다.

미시적인 나노개발분야에서 거시적인 우주개발분야에 이르기까지 과학의 힘은 인간의 문명과 정비례한다고 말할수 있다.

하지만 과학적발명이나 발견은 누가 하였는가 아니라 어떻게 리용되는가에 따라 그 가치가 상

**침략의 핵에 맞선 자위의 핵**

받된다. 핵의 발견과 발명도 마찬가지다.

큐리부인의 라듐발견은 20세기 원자력의 시대를 열어놓았지만 그것이 《범죄자의 손에 들어 가면 대단히 위험하다.》고 한 그의 우려대로 제국주의침략국가인 미국의 손에 첫 원자탄이 쥐여진것은 인류에게는 매우 불행이었다.

미국에 의하여 처음으로 제작된 원자탄은 1945년 8월 일본의 히로시마와 나가사키에 투하되었고 결과 수많은 민간인이 학살되였다.

미국은 과학적발견을 침략수단의 발명에 악용하여 인류력사상 처음으로 핵참화의 범죄를 저질렀고 우리 민족은 일본인들과 함께 원자탄의 첫 피해자로 되였다.

과학의 힘이 정의의 수단으로 될 때 보검으로 되지만 부정의의 도구로 전락되면 흉기가 된다는것을 보여준 력사적교훈이다.

하다면 공화국이 보유한 자위적핵억제력은 어디에 속하는것인가. 전자인가 후자인가.

구하여 설명하지 않아도 전자, 즉 정의의 수단이라는것이다.

공화국이 핵을 보유한것은 수십년에 달하는 미국의 핵위협에 대응한 정당한 조치이고 침략자들에게 주는 정의의 대답이기때문이다.

미국은 1950년대 조선전쟁시기 조선반도에 대한 핵무기사용을 시도하였으며 이후에는 남조선에 핵무기를 대대적으로 끌어들이고 그의 실용화를 위한 핵전쟁연습을 년례적으로, 정기적으로 벌려왔다.

더우기 미국이 아시아지배전략을 대외정책의 일선에 놓고 그 무게중심을 조선반도, 즉 공화국에 대한 침략에 두고 핵전쟁소동에 박차를 가하고있는 오늘날의 환경에서 자위적핵억제력의 강화는 더욱 절실한 문제로 되였다.

최근 발표된 자료에 의하더라도 미국방성이 가지고있는 핵잠수함들중 60%이상인 태평양에 전개되어있고 그것은 조선반도와 그 주변에 대한 침략의 사명을 수행하고있고 한다.

세기와 세기를 이어가증되는 미국의 핵위협을 제거하는데는 그 어떤 말이나 회담이 필요없다.

침략의 핵위협에는 자위의 핵억제력으로만 맞설수 있는것이다. 불에는 불, 핵에는 핵으로.

이것이 공화국의 자위적핵억제력의 정의의 대답이다.

오래전부터 조선반도는 그 지정학적중요성으로 하여 령강들의 아귀다툼의 대상으로, 우리 민족은 그 희생물로 되어왔었다.

미국도 조선반도를 아시아라는 《큰 고기덩이》를 잘라내는 《단검》으로, 《아시아대륙에로의 건능다리》로 묘사하면서 아시아침략의 첫 포문을 조선반도에서 울리었다는것은 알려진 사실이다.

힘이 없으면 대국들잡에서 눈치를 보아야 하고 종당에는 짓눌리게 된다 는것은 우리 민족이 력사를 통해 얻은 피눈물의 교훈이다.

공화국의 자위적핵억제는 과거 화승대박에 없었던 약소민족을 핵보유국

의 민족사적사변이며 막강한 자위적핵억제력으로 민족의 존엄과 자주권을 수호할수 있게 한 일대 장거이다.

공화국이 자위적핵억제력을 보유하지 못했다면 이라크나 리비아와 같이 미국의 핵강권에 머리를 숙여야 했을것이고 온 강토가 폐허로 변했을것이다.

미국이 핵대국이라 으시 대며 핵전쟁을 마구 부리면서 주권국가들을 함부로 통락하는 오늘의 국제정세를 놓고보아도 공화국의 자위적핵억제력은 미국의 핵강권에 의한 불평등하고 불공정한 《세계질서》에 파열구를 내는 정의의 선 핵인것이다.

민족을 지키고 조선반도의 평화를 수호하며 세계 평화에도 이바지한다는데 공화국의 자위적핵억제가

가지는 정당성이 있다.

미국은 이미전부터 공화국의 정정당당한 자위적핵억제력에 갈팡질팡하며 《제재》를 떠들고있다.

막강한 군사복합체와 독점자본을 살리기 위해 수백차의 전쟁을 벌이고 핵강권을 휘두르며 주권국가들을 침략하는 미국이 남에게 총 한방 쏘본적 없는 공화국이 자위의 핵억제력을 보유했다고 생트집을 거는 그야말로 도적이 도적이야 하고있다.

무서워서다. 저들의 침략의 핵에 당당히 맞선 공화국이 두려워서이고 핵강권에 의한 《세계질서》에 원심분리 현상이 일어나는것이 겁에 질려서이다.

부정의는 정의를 이길수 없고 불려코 파산을 면할수 없다는것을 공화국의 자위적핵억제력이 응변해주고있다.

미국은 현실을 직시하고 그대로 받아들여야 한다.

본사기자 김정혁

# 평화와 안전수호에 통일의 길이 있다

경에하는 원수님께서 신년사에서 밝히신것처럼 조선반도에서 전쟁위험을 막고 평화와 안전을 수호하는것은 나라의 통일을 실현하기 위한 근본조건이다.

미국의 침략적인 대아시아 지배전략과 무분별한 반공화국전쟁책동으로 말미암아 오늘날 조선반도는 세계최대의 열접지역, 핵전쟁발원지로 되고있다. 최근년간 중동을 비롯한 세계의 여러 지역에서는 각이한 세력들사이의 무장 충돌, 테로와 보복의 악순환이 반복되고있다. 하지만 조선반도처럼 핵무기를 포함한 첨단무기들과 방대한 침략무력이 지상과 해상, 수중과 공중에 항시적으로 전개되어있고 어느 순간에 핵전쟁의 검은구름이 퍼져오를지 모르는 위험천만한 지역은 그 어디에도 없다.

미국과 남조선호전파들은 수십년전부터 해마다 공화국을 반대하는 대규모의 핵전쟁연습을 여러차례씩 벌려놓으면서 조선반도정세를 극도로 격화시키고 북남관계에 엄청난 장해를 조성하여왔다.

《팀 스피리트》, 《련합진시중원연습》, 《키 리졸브》,

《올지 프리덤 가디언》, 《독수리》 등 각이한 명칭을 단이 전쟁연습들에는 웅근 하나의 전쟁을 치르고도 남을 수십만의 병력과 핵항공모함을 비롯한 각종 핵타격수단들이 동원되어 공화국의 안전과 우리민족의 생존권을 엄중히 위협하였다.

군사적대결과 전쟁위험이 고조되는 속에서 북남사이의 불신과 오해를 가질수 없고 민족의 단합과 통일을 이룩할수 없다는것은 자명한 리치이다. 70여년간이나 지속된 나라의 분렬과 그로 인한 조선반도에서의 군사적대결로 하여 우리 민족은 이루 헤아릴수 없는 불행과 고통을 당하고있다. 민족의 자주적발전과 조국통일, 민족번영에 이바지되어야 할 막대한 인적, 물적재부들이 외세에게 어부지리를 주는 북남대결에 소모되고 있는것은 가슴아픈 비극이 아닐수 없다.

우리 민족이 대대손손 살아 가야 할 삼천리조국강토를 지키고 나라의 통일과 민족번영

을 이룩하자면 조선반도에서 전쟁위험을 하루빨리 제거하고 공고한 평화를 이룩하여야 한다.

하기에 공화국은 지난 수십년간 평화와 통일에 대한 온 겨레의 지향과 념원을 실현하기 위해 줄기차게 노력해왔다. 나라의 통일문제를 외세의 간섭이 없이 자주적으로, 민족대단결을 도모하는 원칙에서 평화적방법으로 해결하려는것은 조국통일에 관한 공화국의 시종일관한 원칙적립장이다.

공화국의 확고부동한 평화통일의지와 시종일관한 노력으로 하여 이미 40여년전부터 자주, 평화통일, 민족대단결의 조국통일3대원칙을 기본내용으로 하는 7.4공동성명이 발표되고 전민족적범위에서 조국통일운동이 고조되었다. 또한 2000년에 민족분렬사상 처음으로 력사적인 북남수뇌상봉이 마련되고 우리민족끼리를 기본정신으로 하는 북남공동선언이 채택된것은 평화통일을 위한 우리 민

족의 투쟁사에서 특기할 의의를 가지는 획기적인 사변으로 되었다. 6.15공동선언의 실천강령인 10.4선언의 채택은 북남사이의 관계발전과 평화번영의 새로운 넓은 길을 열어주었다.

하지만 이 모든 노력은 미국의 대조선적대시정책에 편승하여 《체제통일》의 홍심을 실현하기 위해 남조선의 하늘과 땅, 바다를 북침전쟁을 위한 전초기지로, 핵화약고로 만들어놓은 남조선보수세력의 책동으로 말미암아 오늘까지도 옹당한 결실을 맺지 못하고있다.

올해에 들어와 미국과 남조선당국은 여러해전부터 추진하여오던 미국의 고고도미싸일방위체계인 《싸드》

(《THAAD》)의 남조선배치를 어떻게 하나 실현해보려고 미친듯이 날뛰고있다. 공화국과 주변나라들을 파녀으며 삼고있는 《싸드》가 남조선에 배치된다면 조선반도를 포함한 동북아시아지역의 평화와 안전이 엄중히 위협당하게 되리라는것은 불보듯

명백하다. 시시각각 삼천리강토와 우리겨레의 머리에 핵전쟁의 불구름을 몰아오는 미국과 남조선보수당국의 이러한 책동은 절대로 용납될수 없다.

해내외의 온 겨레는 내외반통일호전세력의 침략과 전쟁책동을 짓부시고 자주통일의 새시대를 열어나가기 위한 투쟁을 더욱 힘차게 벌려나가야 할것이다.

본사기자 김철민



# 민족의 통일과 번영을 추동하는 자강력

100% 자체의 힘과 기술, 지혜에 의거한 북의 첫 수소탄시험성공소식은 우리재카나다동포들을 커다란 격정속에 뒤흔들고있었습니다.

몸은 비록 이역에 있어도 날로 높아지는 북의 위상과 함께 세상에서 가장 우수한 민족, 가장 존엄 있고 강위력한 민족의 한성원이 된 긍지와 자긍심이 가슴을 짝 찢고 살게 해줍니다.

북의 수소탄시험의 완전성공은 곧 자강력의 승리라고 말할수 있습니다.

사대와 외세의존은 강국의 길이여 자강의 길만이 우리 조국, 우리 민족의 존엄을 살리고 혁명과 건설의 활로를 열어가는 길이라는 철리를 밝혀주신 김정원수님이십니다.

## 자강력으로 승리해온 북

제힘을 믿지 못하고 남에게 의존하는 사대주의는 곧 매국이고 멸망이라는것은 우리 민족사가 보여주는 교훈입니다.

사대에 쫓겨 외풍에 들떠 황궁의 경비도 외국군대가 맡아서고 한나라의 입금이 다른 나라의 대사관에 피신가고 황후가 대낮에 왜적의 칼부림에 절명해야 했던것이 바로 19세기말~20세기초 조선봉건왕조가 겪은 비극적운명이었습니다.

이것은 곧 한 민족에게 있어서 자주와 존엄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피의 교훈으로 새겨주었습니다. 자기 힘을 믿지 못하고 사대주의의 일삼은 부패무능한 봉건관료들에 의하여 삼천리금수강산이 강도 일제에게 통째로 빼앗기고 이 나라 백성들이 상가집게만도 못한 인생살이로 신음할 때 우리 선조들이 얼마나 애라게 불려왔었습니까.

《한울님이시여, 이 혼탁된 동란의 세월이 그 인제 평정을 이루고 우리 배탈국에 독립과 평화로운

나라.

자기의것에 대한 믿음과 애착, 자기의것에 대한 긍지와 자부심을 가지고 강성국가건설대업과 인민의 아름다운 꿈과 리상을 반드시 자체의 힘과 기술, 자원으로 이룩하여야 한다고 하시던 원수님의 말씀은 곧 지나온 민족사에 대한 총화이며 민족이 나아갈 앞길을 밝혀주는 등대였습니다.

자강력만이 민족의 살길이고 번영의 길이라는것은 어제와 오늘을 거듭하며 력사가 새겨온 진리입니다.

그 진리가 바로 오늘날에는 북의 수소탄시험의 완전성공이라는 승리를 안아왔고 또 북의 래일의 영원한 승리를 담보해주고있습니다.

## 자강력으로 승리해온 북

지상천국이 도래하겠습니까? 내려보내주시오이다. 단군성왕님의 피출기를 지켜줄 성인을 내려보내주시오이다.》

백두산천지의 맑은 물을 떠놓고 도란에 빠진 민족의 운명을 구원해줄 구세주를 찾고 부르던 선조들의 목갈린 부름이 오늘도 들려오는듯싶습니다.

민이 하늘에 닿으면 성인이 내린다 하였습니까.

그 분이 바로 김일성주석님이시였습니다.

사대로 잃은 민족을 자주로 찾겠다고 결심하신 그분께서는 머리회 독립운동자들이 상해로, 할빈으로, 아라사로 들어가 대국들의 힘에 민족의 명줄을 걸 때 안도현 소사하의 로기점팔에서 무장투쟁의 붉은기를 높이 내드시였으며 발톱까지 무장한 일본제국주의를 민중 하나를 믿고 대항해 싸우시였습니다.

큰나라에서 수류탄공장이나 무기공장을 들여와야 승산이 있다는 사대주의자들에게 믿을것은 우리 두손뿐이고 의거할것

은 우리 인민뿐이라고 단호히 선을 그으시며 연결폭탄으로 왜적의 무리를 기절초풍케 하시였던 주석님이시였습니다.

사대나 자주나를 가르치는 엄혹하였던 1941년의 광풍속에서도 조선혁명군 조선공산주의자들의 숭고한 의무이며 오직 조선민족자체의 힘으로 완수해야 한다는 주석님의 억척불변의 민족자주정신이 있어 우리 민족은 광복의 대사변을 주동적으로 맞이할수 있었습니다.

민족자주의 힘으로 찾은 조국을 자주로 지켜야 한다는것은 수령님들의 평생의 신조였습니다.

3년간의 전쟁으로 폐허가 된 조선에서 건질것이란 부서진 벽돌과 재가루밖에 없다. 대국들의 지원이 없이는 허리는 고사하고 손가락마저 찢지 못할것이라고 너두리를 꿰쳐대는 사대주의자들과 대국주의자들의 면상을 자력갱생이라는 철퇴로 후려치시며 세계의 하늘 높이 천리마를 띄워주신 수령님이십니다.

힘드나, 위우나가 문제로 나선것이 아니라 사느냐, 죽느냐가 눈앞의 현실로 닥쳐왔던 것처럼 엄혹한 고난의 행군시기 김정일국방위원장님께서 그 누구도 우리를 도와주려고 하지 않는다, 오직 믿을것은 우리 힘, 우리 인민밖에 없다, 제힘으로 강국을 일떠세우자시며 원조를 청하는 외국행이 아니라 인민이 있는 곳으로 씩씩이 달려서 갔고 얼마 남지 않았던 자금마저 공화국특유의 현대화에 강그러 들리시켰습니다.

바로 공화국의 핵과 위성도, CNC기계바다와 선군의 절경들도 수령님들의 자강력의 위대한 유산입니다. 그 힘에 떠받들리어 오늘날 조국은 강위력한 수소탄을 개발한 당당한 핵보유국으로 세계정치무대

의 한복판에 들어서게 되었습니다.

우리의 위성은 하늘을 날고 우리의 철갑상어는 바다로 간다!

모진 고난속에서도 끝끝내는 자강력의 위대한 승리를 안아오신 김정일국방위원장님께서 노래처럼 정답게 외워보시던 그 말씀은 오늘날 거대한 메아리가 되여 조선반도와 행성을 울리고있습니다.

하늘에서는 우리가 만든 비행기가 날고 지하에서는 우리가 만든 지하전동차가 달린다고 하시며 이는 자강력이 안아온 경이적인 화폭이 아닐수 없다고 하시던 경에하는

## 민족의 자강력으로

자강력으로 승리하고 자강력으로 승리해가는 북의 모습에서 우리 동포들은 민족이 나아갈 앞길

을 보고있습니다. 민족의 통일과 번영의 길도 바로 자강력에 있습니다.

그 길에 민족의 운명과 미래가 달려있으며 그 길만이 존엄높고 부흥하는 통일강국을 일떠세울수 있는 길이라는것을 북의 이번 첫 수소탄시험의 완전성공에서 확신하게 되었습니다.

돌이켜보면 우리 민족은 그 어느 나라, 민족보다도 핵위협을 지속적으로 강도높게 받아왔습니다.

그러나 북이 수소탄을 보유함으로써 미국이 핵으로 북을 위협하던 시대는 영원히 지나가게 되었습니다.

지난해 미국대통령 오바마는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이 100만의 군대와 핵기술, 미싸일을 보유하고 있다. ...워싱턴의 영향력은 제한되어있다.》라고 비명을 질렀지만 새해벽두에 터져오른 북의 수소탄시험의 장쾌한 퇴성에는 아예 정신이 나가 고말았습니다. 어제날까지는 북에 대

김정은원수님의 말씀은 수소폭탄의 거대한 폭음으로 이어졌습니다.

남의 힘 믿고 바라다보면 지척도 아득한 만리, 자기 힘 믿고 펼쳐나서면 천리도 눈앞의 지척.

이는 북의 인민들이 어렵고 힘들 때마다 즐겨 부르는 노래의 한 구절입니다.

자력자강으로 일떠서고 전진하고 승리해나가는 북의 신념과 전통을 보여주는 생동한 노래가 아닐수 없습니다.

참으로 북의 력사는 자강력의 력사이며 북의 승리는 곧 자강력이 안아온 승리였습니다.

## 민족의 자강력으로

한 워싱턴의 영향력이 제한되어있다고 미국대통령이 말했지만 오늘날에 와서는 북의 영향력에 자국이 놓이게 되었다는것을 좋든싫든 미국이 인정하지 않으면 안되게 된것이 바로 현실입니다.

자강력의 승리인 북의 수소탄시험의 완전성공으로 하여 세계의 정치구도는 완전히 바뀌었으며 지정학적으로 대국들

끼리 싸움은 감수해야만 했던 우리 겨레가 강국의 존엄을 안고 세상을 내려다보며 살게 되었습니다.

부상하는 북녘의 모습은 우리 겨레에게 뜻과 마음을 하나로 합쳐 민족의 자강력으로 일떠선다면 통일과 민족부흥이 먼 앞날의 일이 아니라는것을 말해주고있습니다.

몽치면 강해지고 홀어지면 약해진다는것이 바로 보편적인 진리입니다. 도이칠란드의 저명한 력사학자 랑메는 《한 나라의 흥망성쇠를 좌우하는 결정적요인은 국토의 크기도 아니요, 군사력도 아니요, 경제력도 아닙니다. 그것은 국민의 도덕적이미지이며 그것이 하나로 결합될 때만이 옹당한 결실을 볼수 있다.》

라고 말하였습니다. 그렇습니다. 제힘을 믿고 모두가 하나로 뭉치면 못해낼 일이 없고 이룩하지 못할 대업이 없다는것을 북의 수소탄이 증명하여주었습니다.

사대가 극에 닿은 남조선의 현실은 외세의존, 사대굴종이 우리 민족에게 얼마나 큰 해를 끼치고있는가를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국권중의 국권인 군권마저 미국에게 섬겨바치고 《눈치외교의 달인》이라는 비평속에 주변국들의 짬에 끼워 제 주권 한번 훑바로 못 세워보는 남조선입니다. 미국의 지시봉에 따라 모든것이 움직이고 미국이 교뿔에 걸리면 고열을 앓게 되는

남조선보수당국이 그 무순 《자외교》니, 《자주국방》이니, 《창조경제》니 뉘니 하면서 가소롭게 놀아내고있습니다. 남조선당국의 사대매국 굴종행위로 말미암아 조선반도에는 항시적인 전쟁위험이 떠돌고있으며 민족의 통일과 번영을 위한 걸음에도 커다란 난관이 조성되고있습니다.

예로부터 집안사랑은 문열고 하고 집안싸움은 문을 닫아매고 한다고 하였습니까.

하건만 사대에 눈이 멀어 정신까지 잃은 남조선 보수세력들은 집안문제, 민족내부문제를 외부에 들고다니며 피를 나눈 동족을 《압박》하고 《제재》하고 《붕괴》시켜달라고 수치스러운 구걸놀음을 벌리고있습니다.

동서고금을 둘러보아도 한피줄을 타고난 제 친형제를 죽여달라고 동네를 돌아다니는 그런 비극이 산생된적이 있었다는 말을 들어보지 못하였습니다.

민족의 통일문제를 렬 강들의 《도움》을 받아 해결하겠다는것은 민족을 팔아먹겠다는 소리나 같습니니다. 외세에 의거하여서는 언제 가도 통일을 이룰수 없으며 북남관계를

다욱 파국으로 몰아가고 민족공동의 물질적부가 무의미한 동족상쟁에 소모되게 된다는것은 지나온 북남관계사가 말해주는 철리입니다.

민족이 하나로 뭉쳐 함께 통일의 길로, 번영의 길로 나가자는것은 북의 시종일관한 립장이라고 봅니다.

조국통일3대원칙과 북남선언들을 비롯한 민족공동의 합의들은 다 민족자주를 기본내용으로 하고있습니다. 민족자주만이 살길이고 그 길에 민족의 밝은 미래가 있다는것이 지나온 민족분렬사에서 우리 겨레가 찾은 교훈이며 진리입니다. 하기에 김정원수님께서 는 올해신년사에서 조국통일3대원칙과 북남선언들은 민족공동의 통일대업이며 온 겨레는 그것이 하루빨리 리행되어 통일의 전환적국면이 열리기를 바란다고, 북과 남, 해외의 전체 조선민족은 내외반통일세력의 도전과 방해책동을 물리치고 우리 민족끼리의 기치밑에 이 땅위에 존엄높고 부강번영하는 통일강국을 일떠세워야 한다고 뜨겁게 호소하신것입니다. 경 에 하 는 김정원수님께서 새해에 발표하신 신년사가 우리는 겨레에게 자강력만이 민족의 존엄과 자주권을 지키고 통일과 번영도 이룩할수 있다는 고귀한 지침으로 된다면 주체조선의 첫 수소탄폭음은 그의 정당성과 생활력을 세인앞에 증명시킨 일대 쾌거가 아닐수 없는것입니다. 미래가 보입니다. 신심이 생깁니다. 자강력, 바로 이 길만이 민족이 살길이고 통일과 평화번영도 이룩할수 있다는것을 북의 수소탄폭음에서 새겨듣고 그 길로 역세게 싸워나갈 결심을 더욱더 가다듬는 우리들입니다. 재카나다동포 주영성

조선반도에 조성된 현 사태와 관련하여 본사기자는 정세전문가 량세철과 대담을 가졌다.

기자: 세계의 촉각이 조선반도에 쏠리고있다. 이러한 가운데 조선반도 핵문제에 국제사회의 기본초점이 모아지고있는데 이에 대해 이야기를 나누었으면 한다.

량세철: 조선반도핵문제의 본질을 정확히 리해하고 그 해결방도를 윗게 찾자면 먼저 조선반도에 언제 누구에 의하여 처음 핵무기가 전개되고 핵공장이 누구에 의해 개척되고있는가 하는것을 따져보아야 한다.

미국은 조선반도에 처음으로 핵무기를 끌어들이는 장본인이다.

지금으로부터 58년전인 1958년 1월 29일 미국은 남조선에 핵무기를 반입하였다는것을 공식 발표하였다. 바로 이것이 조선반도에서 핵문제를 산생시킨 출발점이다.

남조선에 대한 미국의 핵무기배비는 부단히 증대되어 1970년대 중엽에는 그 수가 1 000여개를 넘어섰다. 하여 남조선은 극동최

# 대담 조선반도핵문제의 근원과 해답

대의 핵전초기지, 핵병기고로 진전되었다. 당시 미하원 의원 로날드 디링즈는 《미국은 남조선에 핵무기 1 000여개와 핵폭탄은 반용비행기 54대를 보유하고있다.》고 실토했었다.

이렇게 전개된 1 000여개의 핵무기는 공화국을 타격목표로 정하고 나라의 자주권과 민족의 생존권을 엄중히 위협하였다.

우리 민족에게 있어서 핵위협은 추상적인 개념이 아니라 현실적이며 구체적인 체험이다.

지난 세기의 조선전쟁시기 미국은 핵무기사용을 획책했었다.

1950년 11월 30일 미국대통령 트루먼이 조선전쟁에서의 원자탄사용에 대해 공개적으로 언급한데 이어 같은날 미전략항공대에 《극동에 즉시적인 원자탄투하를 위해 폭격기들을 날려보낼수 있도록 대기》할데 대한 지시가 하달되었다.

그해 12월 미국동군사령관 맥아더는 《조선북

부에 동해로부터 서해에 이르는 방사능복도지대를 형성할것이다. 그 지대안에서는 60년 혹은 120년동안 생명체가 소생하지 못할것이다.》라고 꺼리낌없이 폭언하였다.

미국의 무모한 대조선 핵공갈과 선제공격위협은 정전이후 오늘에 이르는 수십년동안 지속적으로 존재해왔으며 날로 그 위협성과 엄중성이 커졌다.

미국은 1960년대말부터 핵무기를 공화국을 반대하는 침략전쟁에 실시 사용하기 위한 핵전쟁연습을 벌려놓았다.

1969년 《포커스 레티너》 작전으로 시작된 미국 남조선합동핵전쟁연습은 그 이후 《프리덤 볼트》, 《팀 스피리트》, 《련합 전시중원연습》, 《키 리 줄브》, 《독수리》와 《을지 프리덤 가디언》 등으로 이름을 바꾸며 매해 끊임없이 감행되어왔다.

이처럼 전후에 태어난 세대들도 남조선에 실전

배비된 미국핵무기의 과녁으로 되어 핵위협속에 자라난것이 바로 조선반도의 엄연한 현실이다.

사실들이 보여주듯이 조선반도핵문제는 미국이 남조선에 핵무기를 끌어들이고 반세기이상 우리 민족에게 핵위협을 가하고있는 데로부터 산생되었다.

에당초 미국이 남조선에 핵무기를 전개하지 않고 공화국에 핵위협을 가하지 않았다라면 조선반도는 이미 비핵지대로 된 지 오래였을것이다.

공화국은 수십년간 미국의 핵위협을 일방적으로 받아왔다.

적대관계에 있는 일방이 엄청난 핵무기를 쥐고 있는 반면에 다른 일방이 비핵국가라면 높아지는것은 핵전쟁위험뿐이다.

하기에 공화국은 미국의 모험적인 핵전쟁책동을 제압하고 민족의 안전과 조선반도의 평화와 안정을 수호하기 위해 부득불 핵을 보유하는 길로 나가진 않았으면 안되었다.

공화국을 핵보유어로 떠민것은 시종일관 대조선적

대시압살정책과 핵위협을 가해온 미국인것이다.

공화국이 자위적핵억제력을 갖추고 당당한 핵보유국의 지위를 차지함으로써 조선반도에서 핵전쟁방지와 지역의 평화수호의 담보가 마련되게 되었다.

미국이 한 민족을 대상으로 수십년동안 핵위협을 가하고도 거기에 대처한 공화국의 자위적조치를 결코 고드는것이아말로 도적이 매를 드는 격의 파렴치하고 날갈도적인 처사이다.

기자: 지금 세계의 공정한 여론들은 조선반도에서 핵문제가 순조롭게 해결되려면 미국의 대조선적 대시정책이 철회되고 항구적인 평화체제가 마련되어야 한다고 주장하고있다. 이러한 목소리는 미국내에서도 울려나오고있다.

량세철: 속담에 매들은 그것을 맨 사람이 풀어야 한다는 말이 있다.

조선반도핵문제는 철두철미 공화국에 대한 미국의 적대시정책과 핵전쟁위협으로 산생된 문제로서 근본책임은 자야 할 기본당사자는 미국이다.

알려진것처럼 공화국은 미국의 핵위협을 제거하기 위해 할수 있는 모든 노력을 다하였다.

핵무기전파방지구약에도 가입하고 국제원자력기구의 사찰도 받아보았다. 쌍무 및 다무구에서 비핵화론의를 선행시켜보기도 하였고 비핵화와 평화협정체결문제를 동시에 포괄적으로 토의해보기도 하였다.

그러나 대화를 통한 노력도, 국제법에 의거한 노력도 모두 수포로 돌아갔다.

현실은 미국의 뿌리깊은 대조선적대관념을 송두리채 들어내지 않고서는 아무런 문제도 해결할수 없으며 오히려 대결과 충돌위험만 증대시킬뿐이라는것을 보여주고있다.

조선반도에서 핵대결이 격화되고있는 근저에는 불신과 대결을 낳는 조미사이의 적대관계가 놓여있다. 정전협정당사국인 조미가 서로 총부리를 맞대고있는 적대관계가 존속해있는 한 호상 불신과 대결이 사라질수 없으며 조선반도문제의 그 어떤 해

결도 기대할수 없다. 공화국이 조미간의 평화협정체결을 요구하고있는것은 바로 조선반도의 긴장격화와 핵문제의 화근인 미국의 대조선적대시정책을 종식시키기 위해서이다.

더우기 평화협정체결은 조선반도에서 정전을 공고한 평화로 전환시킬데 대한 1975년 10월 제30차 유엔총회 결의리행과정으로서 조미사이의 불신을 해소하는 가장 효과적인 신뢰구축조치로 된다.

공화국은 단순히 핵보유국이 아니라 당당한 핵강국으로 솟아올랐으며 미국의 핵도발을 핵으로 보복할수 있는 능력을 갖추었다.

미국이 원하는 그 어떤 전쟁방식에도 다 상대해줄수 있는 그런 힘이 공화국에 갖추어진것이 바로 오늘의 현실이다.

미국은 이러한 현실을 인식해야 하며 대조선적 대시정책이 이제는 자기수명을 다 산 폐기품이라는것을 깨달아야 한다.

미국은 조선반도에서 핵전쟁도발책동으로써는 얻는것보다 잃는것이 훨씬 더 커졌다는것을 똑똑히 알고 시대착오적인 대조선적대시정책을 포기하여야 한다.

## 긴장격화의 위험한 불씨 - 《싸드》

있다. 한 야당인사는 2013년 미국에서 《싸드》포대를

시찰한 국방부 관계자들도 보고서에서 《싸드》가 남조선에 필요하다는 결론을 내리지 못했다고 폭로하면서 실효성이 없는 《싸드》는 무용지물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양무진 경남대학교 교수는 《싸드를 도입할 경우 예산만 6조원가량이 들어가는데 우리의 국방예산으로는 턱없는 규모》라고 비난하였다.

어느 한 미사일전문가는 《싸드》의 주요구성요소인 X대역레이다를 탐지거리가 1 800~2 000km인 전진방식으로가 아니라 탐지거리가 600~900km인 종말방식으로 설치하면 조선반도 주변나라들은 근심하지 않아도 된다고 말하고있지만 기술적으로 볼 때 그것은 전혀 맞지 않는다고 주장하였다.

그러면서 《전진방식인 FBR와 종말방식인 TBR는 하드웨어상 같은 기기를 운영하는것으로, 운영자가 목적에 따라 FBR와 TBR로 전환이 가능하다. 즉 주(한)미군에 싸드를 배치할 경우

에 따라 AN/YPY-2 레이다로 중국을 살살이 훑어볼수 있다는것이다. 중국을 자극하지 않는 범위내에서 싸드체계의 AN/YPY-2엑스밴드레이다를 운영한다는것은 사실상 《눈 가리고 아웅》하는것과 다름없다.》고 폭로하였다.

내외의 여론들은 미국이 《싸드》를 남조선에 배치하려는것은 《북핵위협》에 대응하기 위한것이 아니라 철저히 미국의 대아시아지배와 패권전략에 따라 주변나라들을 견제하고 군사적우세를 차지하기 위한데 목적이 있으며 그것이 남조선에 배치되면 미국과 조선반도주변대국들 사이의 군비경쟁을 촉발시켜 지역의 평화와 안전은 더욱 위태로와질것이라고 평하고있다.

본사기자

일마전 남조선주재 미국 대사관홈페이지에는 최근 미국대사가 남조선을 돌아다닌 지역들을 소개하는 지도가 실렸다고 한다.

그러나 여기에는 조선 민족의 고유령토인 독도가 아예 표시되어있지 않았으며 조선동해마저도 《일본해》로 표기되어있었다고 한다.

이와 거의 때를 같이하여 일본의상까지 중불나게 나서서 독도가 《일본의 고유령토》라느니, 《평유전쟁취를 위해 끈질기게 대응할것》이라느니 하는 나발을 불어댔다.

서울주재 미국대사관만이 아니다. 미국무성이 자기 홈페이지에 올린 지도

에도 조선동해의 《일본해》 표기는 아직까지 여전하다.

과거 조선민족에게 헤아릴수 없는 불행과 고통을 강요했던 일본의 꺼질 줄 모르는 령토펑창야망

## 만평 가재는 계편

에 손을 들어주고있는 미국인이 다시 한번 확인되고있는것이다.

이것은 별로 새삼스러운것이 아니다. 력사적으로 보면 미국은 언제나 침략야망에 들떠있는 일본편에 서있었다. 100여년전 일본의 조선강점을 묵인하고 부추긴 《라프트-가프라협정》이 그

것을 잘 말해주고있다. 미국은 저들의 아시아지배전략실현에 일본을 써먹으려고 각방으로 책동해왔다. 일본이 패망한 후 점령국이었던 일본에서 진행된 도교국제군사재판에서

형식상 명명의 일본전범자들만 처리하고 전쟁에 책임이 있는 많은자들을 놔두고 이른바 《천황제》를 그대로 유지하도록 함으로써 일본의 군국주의 부활을 적극 떠밀어준것이 미국이다.

조선반도와 아시아지역에 대한 미국의 지배야망과 일본의 군국주의해의

를 잘 말해주고있다. 미국은 저들의 아시아지배전략실현에 일본을 써먹으려고 각방으로 책동해왔다. 일본이 패망한 후 점령국이었던 일본에서 진행된 도교국제군사재판에서

가재는 계편이라고 이러한 미국이 《동맹》이라고 묘사하는 남조선은 하찮게 여기면서 일본의 령토펑창야욕을 음모양으로 지지해나서고있는것이다.

이런 미국을 지금도 하내비처럼 여기며 종미의 비굴한 추태를 부리는 남조선당국이 가련하다 해야 할것이다.

현은경

## 현대판 《을사조약》의 망동

45조약》이라고 하면서 남조선의 현 집권세력을 강하게 규탄해나서고있다.

그도 그럴것이 이번의 그 무슨 《합의》는 말그대로 일본의 파렴치한 성노예범죄를 《백지화》 하였기때문이다.

현실적으로 지금 일본은 《합의》에 대하여 《최종적이고 불가역적》이라고 하면서 몇푼의 돈을 주는것 《배상이 아니다.》며 국가적, 법적책임을 회피하고있다. 최근에도 일본은 남조선주재 일본 대사관앞 《평화의 소녀상》철거를 주장하고 일본군성노예범죄의 강제성을 부정하는 등 뻔뻔스럽게 놀아내고있다.

그러나 백년속적 일본과 입맞추며 민족의 존엄과 리익을 서슴없이 팔아먹은 극악한 매국노들인 남조선집권세력들이다.

이미 알려진것처럼 지난해말 남조선과 일본사이의 일본군성노예문제 해결을 위한 그 무슨 《합의》가 이루어졌다.

이 《합의》와 관련하여 남조선 각계는 제2의 《을

사조약》이라고 하면서 남조선의 현 집권세력을 강하게 규탄해나서고있다.

그도 그럴것이 이번의 그 무슨 《합의》는 말그대로 일본의 파렴치한 성노예범죄를 《백지화》 하였기때문이다.

현실적으로 지금 일본은 《합의》에 대하여 《최종적이고 불가역적》이라고 하면서 몇푼의 돈을 주는것 《배상이 아니다.》며 국가적, 법적책임을 회피하고있다. 최근에도 일본은 남조선주재 일본 대사관앞 《평화의 소녀상》철거를 주장하고 일본군성노예범죄의 강제성을 부정하는 등 뻔뻔스럽게 놀아내고있다.

그러나 백년속적 일본과 입맞추며 민족의 존엄과 리익을 서슴없이 팔아먹은 극악한 매국노들인 남조선집권세력들이다.

이미 알려진것처럼 지난해말 남조선과 일본사이의 일본군성노예문제 해결을 위한 그 무슨 《합의》가 이루어졌다.

이 《합의》와 관련하여 남조선 각계는 제2의 《을

사조약》이라고 하면서 남조선의 현 집권세력을 강하게 규탄해나서고있다.

그도 그럴것이 이번의 그 무슨 《합의》는 말그대로 일본의 파렴치한 성노예범죄를 《백지화》 하였기때문이다.

현실적으로 지금 일본은 《합의》에 대하여 《최종적이고 불가역적》이라고 하면서 몇푼의 돈을 주는것 《배상이 아니다.》며 국가적, 법적책임을 회피하고있다. 최근에도 일본은 남조선주재 일본 대사관앞 《평화의 소녀상》철거를 주장하고 일본군성노예범죄의 강제성을 부정하는 등 뻔뻔스럽게 놀아내고있다.

그러나 백년속적 일본과 입맞추며 민족의 존엄과 리익을 서슴없이 팔아먹은 극악한 매국노들인 남조선집권세력들이다.

이미 알려진것처럼 지난해말 남조선과 일본사이의 일본군성노예문제 해결을 위한 그 무슨 《합의》가 이루어졌다.

남조선의 외교부 당국자가 올해 업무보고에서 절실한 문제로 나선 일본군성노예문제를 론하지 않은 사실만 보아도 《합의》결과로 성노예문제를 어물쩍 넘겨보려는 남조선집권세력의 태도를 쉽게 짐작할수 있다.

지금 이 시각에도 《일본이 몇푼의 돈과 맞바꾸는 민족반역행위로서 현대판 《을사조약》인 친일매국 노들만이 할수 있는 망발이고 께변이다.》

지난 시기 일본이 저지른 군성노예범죄는 인류 력사상 그 류례를 찾아볼수 없는 특대형반인륜범죄로서 응당히 국가적인 사회와 법적배상을 받아내야 한다.

그러나 친일에 환장한 남조선의 사대매국세력은 미국의 조종하에 일본의 친인공노할 만행을 어정쩡한 몇마디 《합의》로 덮어버리려 하고 과거청산을 회피하는 백년속적판의 《관계개선》만을 웨치고있으니 이보다 더 쓸개빠진 매국반역행위가 또 있겠는가.

산을 회피하고 군국주의 재침책동에 혈안이 되어 날뛰고있는 일본과의 그 무슨 《관계개선》을 론하는 남조선당국의 행위는 결국 일본에 다시 침략의 문을 열어주고 함께 손잡고 동족을 해치려는 매국행위로밖에 달리 볼수 없다.

민족의 속적과 서슴없이 입맞추며 돌아가는 남조선집권세력들은 《을사조약》과 나란히 저주의 대상으로 민족의 뇌리에 깊이 새겨질것이며 영원히 민족의 단죄속에 몸부림치게 될것이다.

본사기자 황진옥



# 흥취나는 율놀이 풍경

설은 민족의 향취 넘쳐나는 민속명절이다. 이날이 오면 공화국의 어디서나 흔히 볼 수 있는 것이 율놀이이다. 율놀이는 놀이형식과 방법, 도구가 간단하면서도 시간과 장소, 참가인원과 특정한 선수가 따로 없어 남녀로소가 한자리에 모여서 즐길 수 있는 대중적인 민속놀이이다. 처음에는 아이들놀이라며 점잔을 빼다가도 일단 율놀이판에 앉아 율가락이 던져지고 말들이 움

직이기 시작하기 바쁘게 중심에 빠져 지도 모르게 열을 올리게 되는 것이 율놀이이다. 머리하던 사람이 율놀이에서 어린애한테 지고는 한번만 더 하면 꼭 이길 것만 같아 또 하자고 끈질기게 달라붙었다는 데서 《웃진 애비같다.》는 말이 나온 것만 보아도 율놀이가 얼마나 재미있는 대중오락인가를 알 수 있다. 할수록 또 하고 싶고 승부에 관계없이 모든 사람

들의 마음을 즐겁게 해주 는 율놀이는 온 나라가 하나의 화목한 대가정을 이루고 살아가는 공화국에서 더욱 재미있는 놀이로 되고 있다. 공화국에서 민속놀이가 적극 장려되는 속에 집안에서 하던 율놀이는 공원이나 유원지와 같은 야외에서, 큰 체육경기장에서도 진행되고 있다. 술한 군중이 편을 갈라 열을 올려 응원하는 장면을 펼쳐 다른 체육경기 못지 않게 인기를 끄는 율놀이 경기이다. 올해에도 설명절을 앞두고 평양시 중구역 경상동 4인민반원들이 한자리에 모여 앉아 흥겨운 율놀이 경기를 펼쳐 놓았다. 《모야—》 《걸이야—》 《석동산을 놓아라!》 ...

예선단계를 거쳐 올라온 16층과 18층 사이에 준결승경기가 한창 진행되고 있었다. 오늘 율놀이 경기에서 꼭 이겨야 설명절날 결승경기에 참가할 수 있는 지라 두층의 선수들은 물론 응원하는 사람들의 열의도 이만저만이 아니었다.

홍분과 긴장감, 짜릿한 회열과 랑패감이 엇바뀌는 속에 앞서거나 뒤서거나 하며 시간이 흐를수록 율놀이 경기는 더욱 고조되어 갔다. 경기 가 거의 끝날 무렵 누구나 이제는 16층의 승리가 확정적이라고 여겼던 찰나에 그만 상대편의 《말》에 잡혀 승패가 극적으로 뒤바뀌는 바람에 아쉬워하며 발을 동동 구르는 응원자들이며 그런 가하면 좋아라 환성을 올리는 사람들로 하여 온 방안이 떠나갈 듯 하였다.

그 모습을 바라보며 조경숙 인민반장은 저렇게 한바탕 웃고나면 흥취가 나면서 가정에 더 큰 기쁨과 화목한 분위기가 이루어지고 이웃과 마을사람들 사이에 화목과 단합이 한층 더 굳어진다고 말했다.

본사기자 홍범식



설명절을 앞두고 평양시 중구역 경상동 4인민반원들이 한자리에 모여 앉아 흥겨운 율놀이 경기를 펼쳐 놓았다. 《모야—》 《걸이야—》 《석동산을 놓아라!》 ...

기자가 이곳 인민반을 찾았을 때

## 설명절의 특색

### 떡과 떡국

원시적인 농업경리의 시작과 함께 떡을 만들어 먹기 시작한 우리 나라에서는 세나라시기와 고려시기, 조선봉건왕조시기를 거치면서 떡음식이 더욱 다양하게 발전하였다. 고구려고분벽화에는 음식을 시루에 찌는 장면이나 부뚜막에 걸려있는 시루의 모습이 그려져 있다. 《삼국유사》에 술, 감주, 떡, 밥, 차, 과실을 갖추 고 제사를 지냈다고 기록된 것을 보면 우리 선조들이 떡을 자주 만들어 먹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고려시기에 이르러 농사장려정책으로 양곡이 늘어나고 불교에서 육식을 금지하면서 육류와 함께 떡이 발전하여 이웃나라에까지 수출되었다. 조선봉건왕조시기에 이르러 떡은 더욱 다양해졌는데 이 시기 떡종류는 크게 증병(시루떡), 도병(절편, 찰떡), 유전병, 단자병, 상화병(기지떡) 등으로 나누어졌다. 이외에도 첨가되는 재료에 따라 꿀설기, 느리떡, 상추떡, 감자떡, 송편 등 여러 가지가 있었다.

이러한 떡은 설날의 대표적인 별식으로 되어 상에 올랐으며 세배하는 사람들과 놀이하는 사람들을 대접하는 주요음식으로 되었다. 설명절음식에는 떡국도 빼놓을 수 없는 중요한 음식이었다. 옛날사람들은 천지만물이 새로 시작되는 설날에는 모든 것이 엄숙하고 청결해야 한다는 의미에서 흰떡으로 끓인 떡국을 먹었다고 한다. 떡국의 국물로는 소고기나 꿩고기를 끓인 맑은 장국을 썼다.



설기떡



떡국

이러한 떡은 설날의 대표적인 별식으로 되어 상에 올랐으며 세배하는 사람들과 놀이하는 사람들을 대접하는 주요음식으로 되었다.

이러한 떡은 설날의 대표적인 별식으로 되어 상에 올랐으며 세배하는 사람들과 놀이하는 사람들을 대접하는 주요음식으로 되었다.

설명절음식에는 떡국도 빼놓을 수 없는 중요한 음식

북이 최강의 억제력인 수소탄을 보유하는데 대해 지금 미국은 전전긍긍하고 있다.

인정할 수도 없고 힘으로 억제할 수도 없으니 말이다. 미국에 대놓고 말하며 침

## 더욱 확고해진 북의 지위

수자상으로는 미국과 대비할 수 없는 북이다. 인구수에 있어서 미국은 북보다 13배나 더 많으며 평토는 78배나 넓다. 경제규모나 국민소득은 더 말할 것 없다.

북이 정치경제적 동태를 조성하려는 미국의 압력속에서 자력자강으로 사회주의를 지켜왔고 강성국가를 일떠세우고 있다.

과학기술의 첨단수준을 보여주는 우주개발부문에서도 1958년 1월에 첫 실용위성을 발사한 미국은 북보다 수십년이나 앞선 것으로 된다.

불과 단 3차례의 핵실험과 단 한번의 수소탄실험 완전성공으로 최강의 억제력을 보유하고 있다.

핵무기의 발전사를 보아도 미국은 1 030여회의 핵실험을 하여 수천기의 핵무기를 보유한 핵대국이다.

불과 단 3차례의 핵실험과 단 한번의 수소탄실험 완전성공으로 최강의 억제력을 보유하고 있다.

북에 대한 미국의 핵위협과 고립압살책도 반세기를 훨씬 넘는다. 수적으로 훨씬 열세한

자기를 지키기 위해서다. 미국에 의해 조선반도에 핵전쟁위험이 밀려들었어도 누구도 막아주지 않았고 막아줄 수도 없었다.

믿을것은 오직 자기 힘뿐, 이것은 북의 전통이고

약의 핵강권에 자위의 핵을 내대고 맞서는 북의 위상을 보니 조선민족의 긍지와 자부심을 금할 수 없다.

주권국가로서 정당당한 인공지위성의 성과파적인 발사때도 그랬고 핵실험성공때도 무조건 《NO》를 웨친다.

그를 구실로 핵위협을 증가하고 정치적, 경제적, 군사적공갈을 강화해 왔다.

하지만 북은 개가 짖어도 행렬은 간다는 격으로 미국이 뭐라고 하든 자기의 길을 끊임없이 자기 식으로 걸어왔다.

미국의 침략적인 핵위협을 물리치는 길은 자위의 핵을 보유하는 것뿐, 미국의 끊임없고 악랄한 고립압살을 부서버리는 것은 자력자강의 힘뿐, 북은 그것을 실천으로 보여 주었다.

단언하건대 미국의 핵위협이 북의 핵보유를 가속화시켰고 가중스러운

의지이다. 미국은 북에 대해 선천적으로 체질적인 거부감을 가지고 있다.

주권국가로서 정당당한 인공지위성의 성과파적인 발사때도 그랬고 핵실험성공때도 무조건 《NO》를 웨친다.

그를 구실로 핵위협을 증가하고 정치적, 경제적, 군사적공갈을 강화해 왔다.

하지만 북은 개가 짖어도 행렬은 간다는 격으로 미국이 뭐라고 하든 자기의 길을 끊임없이 자기 식으로 걸어왔다.

미국의 침략적인 핵위협을 물리치는 길은 자위의 핵을 보유하는 것뿐, 미국의 끊임없고 악랄한 고립압살을 부서버리는 것은 자력자강의 힘뿐, 북은 그것을 실천으로 보여 주었다.

단언하건대 미국의 핵위협이 북의 핵보유를 가속화시켰고 가중스러운

의지이다. 미국은 북에 대해 선천적으로 체질적인 거부감을 가지고 있다.

설명절은 음력 정월 초하루를 기념하여 쇠는 민속명절이다. 설이란 새해 첫 명절을 이르는 고유한 조선말이다.

설명절은 고조선을 비롯한 고대국가시기부터 있었다. 그후 설명절맞이는 세나라시기와 고려, 조선봉건왕조시기에 이어져 전통적인 풍습으로 더욱 고착되어 큰 규모로 진행되었다.

선달그믐날에는 집안팎을 깨끗이 청소하고 소나무, 학 등 십장생그림을 그려 벽장이나 병풍에 붙여서 명절분위기를 돋구었으며 설옷(설빔, 세장)과

설음식을 준비하였다. 설맞이행사는 정월 초하루 아침부터 진행되었다. 설맞이행사로 는 차례와 세배, 설음식대접, 민속놀이 등이 있었다.

차례는 설날새벽에 먼저

돌아간 조상들에게 지내는 제사로서 조상숭배관념에서 생겨난 행사였다.

설날 이른아침에는 웃등과 여러가지 지짐류, 당과우신 집안의 웃사람 순서로 차례차레 큰절로 세배를 하였으며 다음에

마울의 웃어른들, 친척집의 웃사람들, 스승들에게 세배를 하였다.

설날에 하는 즐거운 일은 다음으로 설음식을 잘 차리며 친척들이 한곳에 모여 먹거나 세배로 찾아오는 사람들에게 대접하는 것이었다.

설명절을 특별히 장식하고 즐겁게 한 것은 민속놀이였다. 설날의 놀이로는 대중적인 놀이인 율놀이와 장가놀이, 어린이들의 연피우기, 썰매타기, 팽이치기, 제기차기, 바람개비놀이 등이 있었다.

이러한 놀이는 우리 인민이 예로부터 즐겨온 것으로서 정서적이면서도 체력단련에 도움을 주었다. 설명절은 오늘도 우리 겨레가 즐겨맞는 가장 큰 민속명절의 하나로 되고 있다. 올해의 설명절은 양력으로 2월 8일이다.

## 우리의 꿈을 싣고 훨훨 날아라

설명절을 가까이 한 요즘 아이들속에서 가장 인기있는 민속놀이는 무엇일까.

뛰니뛰니해도 연피우기를 단연 첫자리에 놓아야 하지 않을까 싶다.

연피우기는 흔히 초겨울에 시작되어 이듬해 목은 추위가 가시기 전에 끝나지만 가장 본격적인 시기는 설명절부터 정월 대보름까지이다.

연피우기는 누가 연을 더 높이 날리는가 등을 가지고 승부를 가른다.

설명절을 앞두고 평양제1백화점과 평양역전백화점, 평양아동백화

점을 비롯한 평양 시내 여러 봉사망들에 동심에 맞는 다양한 형태의 연들이 나와 아이들의 기쁨을 더해 주고 있다.

이 연은 모양에 따라서 가오리형연, 4각형연, 나비형연, 물고기형연, 문어형연 등 여러가지가 있는데 고강력나일론천과 수지대로 만들어 종이연에 비해 든든하면서도 높이 날릴 수 있다고 한다.

연은 나오자마자 아이들속에서 인기를 끌고 있다. 평양시 중구역 련화1동에 사는 리강희녀성은 자기 아들이 특별히 연피우기를 즐겨한다고 하면서 《그전에는 종이로 만든 연이 장난이 세찬 아들의 손에서 하루도 못가 못쓰게 되었는데 이제는 그런 걱정이 없다.》며 기뻐하였다.

본사기자 박철남

본사기자 홍범식

본사기자 홍범식